



LOG

록,
기록하다

파도

LOG

로그LOG는 제주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이니스프리가 지키고 나누고자 하는 제주 자연을 기록하는 매거진입니다. 올해는 생태계의 안식처이자 사람에게 끝없는 예술적 영감이 되어 온 제주 바다를 찾았습니다. 찬찬히 모래 위를 걸으며 늘 당연했던 파도를 다시 바라보고, 그동안 지나쳐버린 것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바람 따라 움직이는 파도처럼, 저마다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려진,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소중한 제주와 오래 호흡하고 싶은 마음을 모아 이니스프리의 시선으로 엮었습니다.

파도를 만끽하는 법

004
Photography
파도



018
Interview
흐름에 몸을 맡기고

028
Guide
나만의 해변을 찾아 나서는 길

038
Now
다시, 청명한 숨결로

042
Share
반짝이는 바다에서 오래 놀고 싶어서

052
Clean Beauty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056
Place
섬을 걷는 동안 마주친 곳들

마음에 이는 파도

068
People
제주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076
Essay
엄마를 찾아서

086
Poetry
사랑 안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094
Word
제주어는 제주 바람을 닮았다

100
Island
달리기와 글쓰기의 상관관계

106
Art
우리 안의 바다



110
Item
제주 사람의 주머니



Wave

파도

글 하나 사진 김유진

바람은 파도를, 파도는 흐름을, 흐름은 주름을 만든다. 뽀얀 몸으로 해변에 들어서
는 파도를 보며 섬의 사람들을 떠올린다. 그들은 어떤 물살에 실려 이곳에 닿았을까.
바다의 일부가 되는 상상을 하며, 끝없이 밀려오고 흘러가는 삶의 파도를 살핀다.











김육선

제주 이방인과 나무들을 사진에 담은 김육선 작가가 이니스프리와 함께 제주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사진은 중심이 아닌 주변을 돌아보는 시선, 대상으로 향한 시선을 가지며, 미묘한 상황 포착과 절제, 특유의 디테일들을 특징으로 한다. 이 사진들이 발산하는 혼성의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시선과 감각을 재구성하고 혼성의 삶과 일상을 수용하는 열린 시야를 획득하게 한다.

파도를 만끽하는 법

걷는 곳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제주 해안을 거닐며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 넓고 깊음을 가늠할 수 없는 세상에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변화무쌍한 바람 가운데 자신만의 보폭을 지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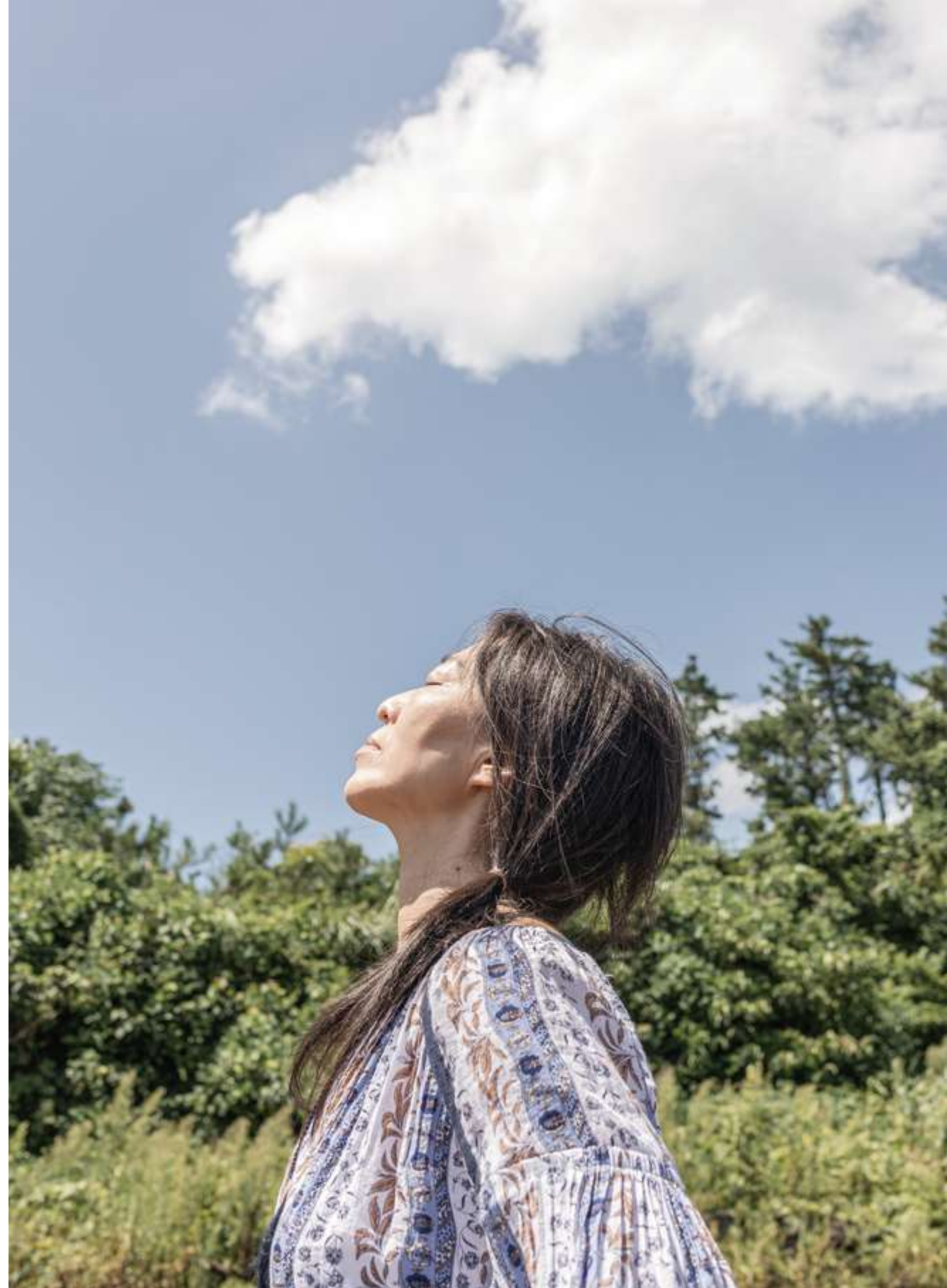
흐름에 몸을 맡기고

Interview

문지선 장필순

뮤지션 장필순

서늘한 목소리가 마음에 스민다. 아득한 곳에서부터 실려 온 물결처럼, 장필순의 음악은 슬며시 삶을 파고든다. 1988년 첫 앨범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마음을 일렁이게 한 그녀의 노래들을 다시 듣는다. 새롭게 연주한 노래에는 15년의 '제주 수니'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제는 기타를 끌어안고 노래하는 모습 뒤로 검푸른 제주의 잔상이 비치는 사람. 그녀가 사는 섬마을, 소길을 찾았다.



뮤지션 장필순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폭풍전야만큼 화창한 날이 없죠. 내일은 태풍이 온다고 했어요. 태풍이 지나갈 땐 또 한 번 힘들어지겠죠. 맑은 동안에 사람들이 날씨를 즐기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19로 공연이 어려워졌어요. 지난해 서울에서 하려던 공연도 연기됐어요. 제주국립박물관에서는 공연을 온라인으로 중계하기도 했어요.

관객 없는 온라인 공연이 어렵지 않은가요?

함께 호흡할 관객이 없는 건 아쉽죠. 템포가 있는 공연은 관객과 함께해야 훨씬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통기타 하나만 들고 올라가거나, 피아노와 프로그래밍만으로 하는 공연을 준비해요. 무대 위에서 온전히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지난봄에는 그동안의 곡들을 다시 작업한 앨범 [soony re: work-1]이 나왔어요.

재밌게 만든 앨범이에요. 한 곡 한 곡 작업한 걸 모아서 낸 거라 모든 노래에 정성을 쏟았죠. 앨범을 내려고 한 번에 몰아서 만들었다면 아쉬운 점이 많았을 거예요.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일ிர량은 또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된 집을 다시 짓거나 꽃을 옮겨 심는 일 같아요. 이미 다 아는 노래를 떠올릴 때는 연주도 같이 생각나잖아요. 그 오리지널을 지우고 집을 다시 짓는 거예요. 기초가 같아도 모양이나 색깔이 다른 집이 되죠. 다 짓고 보면 새롭지만, 어딘가 익숙한 새로움일 거예요. 처음 마주쳤을 때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기분이에요.

리워크 곡들은 오리지널 버전보다 아련한 분위기가 있어요. 바람 속에서 노래하는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제주의 영향인지 궁금했어요.

그런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제주에는 자연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녹음 환경도 도시와는 달라요. 까치 소리나 개 짖는 소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여름밤에는 매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몰라요(웃음). 요즘 조동익 씨와 함께하는 작업에서는 그 소리들을 다 살리고 있어요. 자연의 소리가 잔뜩 들어간 곡이 만들어지겠죠.

노래하는 언어가 하나 더 생겼네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여요. 장필순의 음악도 마찬가지로요. 인위적으로 뽐내지 않는 악기와 목소리, 노랫말에서 위로를 받아요.

아휴, 고마워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요즘 음악과는 조금 다르죠. 최근에 젊은 뮤지션들과 작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가요는 직설적인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젊은 뮤지션이라고 하니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 눈여겨보는 후배 뮤지션이 있나요?

특별히 눈여겨본다기보다 여성 뮤지션이 많아진 게 반갑고 기뻐요. 예전에 여성 아티스트가 모이는 공연에 나간 적이 있어요. 요조, 강아솔, 선우정아 등등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데 다들 자기 색깔이 뚜렷한 거예요. 다양한 음악을 하는 여성 뮤지션이 늘었다는 데 놀랐어요. 참 좋더라고요.

자기 색깔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도 요즘은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자기 매력을 선보일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잖아요. 좋은 변화 같아요.





장소 협조 요유나카페
A.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정소로 211



장필순의 색을 찾는 여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몇 번이고 큰 고비가 있었어요. 그래도 모두 견뎌냈으니 지금 여기에 있는 거겠죠. 지나온 후라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요.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겨낸 것 역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넘길 수 있는 파도였던 거라고요.

그렇더라도 중심 잡을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파도를 넘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힘이라... 뻔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음악이네요. 삶이 힘들 때마다 음악에 파고들었어요. 그때마다 함께해 준 사람들도 있었어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삶의 위기는 스스로 이겨내야겠지만, 그럴 수 있는 힘은 주변에서 얻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음악부터 함께한 분들의 이름이 떠올라요. 여전히 자주 만나나요?

물론 하나음악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약속 없이도 모이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이제 약속하고 만나야 하는데 제가 집 밖에 잘 안 나가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조동익 씨와 늘 함께하면서 음악에 대해 이야기 나

눌 수 있으니 좋아요.

집에서 잘 안 나오나요?

네, 워낙 안 나가니 사람들이 찾아와요(웃음). 강아지들을 두고 멀리 나가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여행을 한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제주에 와서 16년째인데 아직 백록담에도 못 가봤어요. 조금 창피한 얘기네요.

하긴 생활 영역이 되면 선뜻 여행할 생각이 들지 않죠.

맞아요. 그래도 무너지진 않아요. 아침에 장 보러 나갈 때마다 한라산이 보이거든요. 산에 구름이 얹힌 걸 볼 때나, 이쪽은 봄인데 아직 눈이 남아 있는 백록담을 볼 땐 새삼스러워요. 예전에는 엽서로만 보던 풍경을 매일 실제로 본다는 게 여전히 신기해요.

혼자인 시간이 심심하진 않나요?

별 탈 없이 보내는 편이에요. 외롭거나 심심할 틈이 없기도 하고요. 가끔 눈 욱심으로라도 예쁜 걸 구경하고 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건 가끔 서울에 일이 있을 때 공항 근처에서 해소해요(웃음).



일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음악과 반려견이에요.

역시 음악이네요.

역시 음악이죠. 집에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음악이 있어요. 작업하고 있는 음악이든 다음을 위해 참고하는 음악이든, 잘 때도 끄지 않고 계속 들어요.

잘 때도 음악을 틀어놓는다니 놀랍네요.

그렇죠? 보통의 집과는 좀 다르죠. 오히려 집이 고요하면 기분이 이상해요.

다른 하나는 반려견이네요. 그리고 보니 아침에도 강아지 일곱 마리를 모두 챙겨주고 나왔다고 했죠.

네. 강아지와 함께 사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밥 주고 물 갈아주는 게 끝이 아니니까요. 마당에서 놀아주고, 더운 날엔 물도 끼얹어 주고,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도 있으니 돌아가면서 격리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가요.

사랑이 느껴져요.

이 사랑이 제 삶이나 노래에도 영향을 줘요. 반려견과 사람 사이의 교감이 인간관계와 다르지 않거든요. 영감을 주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죠. 강아지들과 음악이 저한테 가장 중요해요.

몇 년 전부터는 유기견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맞아요. 나서서 활동하진 않지만 유기견 문제를 알리는 데 일조하려고 해요. 제주에 와보니 길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참 많았어요. 마주치는 아이들을 챙겨주다 보니, 언젠가부터 동네 분들이 유기 동물을 보면 저한테 연락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예전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유기견 문제에도 관심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주에 대해 묻고 싶어요. 좋아하는 바다가 있나요?

아, 이건 제주에 살기 전에 매료된 해변 이야기인데요. 4집 앨범 재킷을 촬영하러 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길고 넓은 백사장이라는 데 감탄했죠. 나중에 보니 그게 함덕이었어요. 점점 사람이 많아지긴 하지만, 이전 제주 어디에서나 사람이 많긴 하죠.

함덕 해변 저도 참 좋아해요.

정말 좋죠. 애월에 한담이라는 바다도 꼭 가보세요. 거긴 관광객보다 제주 주민들이 좋아하는 바다였어요. 썰물 때는 모래 언덕이 드러나는데, 예전엔 종종 김밥이랑 커피를 싸 가서

강아지들이랑 뛰어놀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7집에 수록된 '멤멤'의 뮤직비디오도 거기에서 찍었고요. 지금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져서 벵랑에서 바닷가까지 카페촌이 생겼어요. 한적할 때보다 아쉽긴 해도 그게 또 밍지는 않더라고요.

제주 생활 15년,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낼 생각인가요?

도시에서의 생활이 답답하다고 해서 선뜻 섬으로 내려와 살 수 있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곳에 올 수 있게 된 것에 늘 감사해요. 제주에서 느낀 것을 음악에 담아 일상에서 자연을 꿈꾸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날로그하지만 결코 촌스럽지 않고, 시대와 상관없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머지않아 새 앨범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해볼게요.

열심히 할게요(웃음). 우선 리워크 작업하는 곡들을 싱글로 하나씩 내려고 해요. 새 정규 앨범 계획도 하고요. 요즘은 좋은 이야기와 멜로디가 떠오를 때마다 부지런히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게으름 피우지 않고요.



나만의 해변을 찾아 나서는 길

Guide

제주바다
공감
공감

제주 사람의 바닷가 안내서

작년 여름,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자주 가던 해변이 있다. 그 해변은 유명한 해수욕장 바로 근처에 있지만 이름 없는 작은 해변이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갈 때마다 반려견과 함께 와서 물놀이를 하는 동네 주민들 몇 명만 만날 뿐이었다. 좁은 모래사장 위에 캠핑 의자를 펼쳐두고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수박을 깨 먹고, 맥주를 마시고, 포장해 온 중국 음식을 먹으며 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오붓하게 보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해변은 근처에 사는 다른 주민들도 '나만의 해변'으로 여기던 곳이었다. 그리고 올해 여름, 이 '우리만의 해변'에 제법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알려지지 않은 해변을 찾아 나섰다.

윤슬이 내는 소리 판포포구

A.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2877-3

그 해변을 찾는 이유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변엔 이유가 있다. 우선 풍경이 아름답고 물이 깊지 않아 해수욕하기 좋다.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잘 갖춰져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그리고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편의시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끼니를 해결하기에도 좋다. 반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해변은 물놀이를 즐기기에 조금 위험하거나, 차로 진입하기 불편하며, 편의시설을 찾기 어려운 곳이 많다. 그렇지만 이곳, 제주에서라면 나만의 해변을 찾아 나서는 모험을 해볼 만하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바다에 한 번 가려면 휴가를 내야 하고, 막히는 고속도로를 뚫고 달려야 한다. 그러니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해수욕장에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그렇지 않다. 제주도는 제주의 어느 지역에 있든 바다까지 차로 30분 넘게 걸리지 않는다. 조금만 달리면 가까운 바다에 발을 담글 수 있다. 그러니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는 굳이 유명한 해수욕장을 찾지 않아도 된다. 가까운 바다로 향하고, 만일 그렇게 찾은 바다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몸을 일으켜 해안을 따라 달리면 된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렵지 않게 내 마음에 쏙 드는 나만의 바다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찾아낸 해변 일곱 곳을 소개한다. 1~2년 사이 꽤 유명해진 곳도 있으며, 제법 큰 해수욕장인데도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도 있다. 모두가 제주에서 자신만의 해변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만의 해변으로 향해본다.

정다운

남미 여행기 <우리는 시간이 아주 많아서>와 제주도민 인터뷰집 <제주에서 뭐 하고 살지?>를 썼다. 모든 일을 '잘 될 거야'라고 낙천적으로 생각해 낯선 곳에 가서 살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정착 인생 자체에는 큰 기대가 없고, 그것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판포포구에 서자마자 과거의 어떤 여행이 떠올랐다. 낯선 나라를 여행하던 중 어디선가 재잘재잘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려 그 소리를 따라갔다가 어느 호수에 닿은 적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낯선 언어나 그런지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의 공기가 무척 다정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는 사이처럼 느껴졌다. 아주 소박한 동네 포구인 판포포구에서 그 기분을 다시 경험했다. 즐거운 소음이 들리는데 시끄럽지 않았다. 바다의 윤슬은 반짝거리고 재잘재잘 소리가 마치 그 작은 물결이 내는 소리 같기도 했다. 사람들은 스노클링 장비나 튜브를 끼고 포구에서 각자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워 보였다.

판포포구는 동네 사람들만의 작은 스노클링 성지였으나 최근 몇 년 사이 꽤 알려져 관광객도 찾는 곳이 되었다. 물이 적당히 깊고 맑아 스노클링을 즐기기에 적당하다. 작고 아늑한 포구가 마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영장 같다. 판포리 청년회에서 튜브와 스노클링 장비, 구명조끼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빌려주어 따로 준비해 가지 않아도 괜찮다. 근처에 양평 두물머리에서 유명하다는 핫도그 가게 제주 분점이 있으니 잊지 말 것. 본점보다 맛있다는 평이 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 소금막 해변

A.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5661번길 33



소금막 해변은 주말마다 서핑을 하러 바다로 향하는 친구가 추천해 준 곳이다. 그 친구는 소금막 해변을 소개하며 “서핑하기는 좋은데, 특별한 게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네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곳이다. ‘아키아서핑스쿨’을 검색하고 찾아가면 소금막 해변에 닿는다.

평범한 해변을 생각하며 큰 기대 없이 향하던 중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주변의 공기가 바뀌었다. 야자수가 황량하게 자란 풍경을 지나 아무렇게나 난 수풀 사이 길을 헤치며 해변을 향해 가는 동안 이 바다는 분명히 좋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해변에 차들이 꽤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렌트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예감은 확신이 되었다.

긴 해변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서핑 존이 따로 있다.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과 서핑하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띄엄띄엄 캠핑 의자를 놓고 앉아 있거나 타프를 치고 돛자리 위에 누워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 소금막 해안가를 따라 올레 3코스가 이어진다. 올레길을 걷다 만나는 소금막 해변은 아주 색다른 느낌을 줄 것 같아, 언젠가 꼭 걸어보겠다고 다짐했다. 소금막 해변은 일몰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기도 하다. 주변에 편의시설은 거의 없지만 표선해수욕장이 바로 옆에 있어 필요한 것들은 거기서 해결하면 된다.

성세기 아래 김녕 세기알 해변

A.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200-5



제주에 살며 알게 된 팁 하나. 한적하고 아름다운 해변은 주로 유명한 해수욕장과 붙어 있다. 그러니 해수욕장을 찾아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복잡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주변을 살펴보기를 추천한다. 작고 고즈넉한 해변과 그곳이 내 마당인 양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흔히들 김녕해수욕장으로 알고 있는 성세기 해변은 제주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해변이다. 캠핑장도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그런 성세기 해변에서 불과 300미터 거리에 세기알 해변이 있는데, ‘세기알’은 ‘성세기 아래’라는 의미다. 세기알 해변은 김녕해수욕장의 아름다운 바닷물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인파가 많지 않다. 게다가 김녕용암해수사우나와 바로 근접해 있어, 해수욕 후 바로 사우나로 이동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곳은 김녕·월정 지질 트레일 중 A코스에 속해 있다. 김녕해수욕장 휴게소에서 출발해 세기알 해변을 지나 도대불, 조간대, 청굴물, 계웃샘물과 샘굴을 거쳐 다시 김녕해수욕장으로 돌아오는 1800미터 구간을 탐방하는 데 약 30분이 걸린다. 도대불은 예전에 배를 선창으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하던 유적으로,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면 서부터 쓸모가 사라졌지만 외형은 그대로 보존돼 있다. 청굴물은 바닷가에 위치한 샘이며, 계웃샘물은 죽어가는 사람도 이 물을 마시면 살아난다는 전설을 지닌 용천수다.

바다와 호수 사이 하도해수욕장

A.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973



종달리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바다와 호수를 가르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 다리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바다고, 왼쪽은 호수다. 이 보기 드문 풍경을 만나면 다들 작은 감탄사를 내뱉는다. 왼편에 있는 호수는 하도리 철새도래지. 그곳에서는 천연기념물 제205호인 저어새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고니, 매, 황조롱이 등과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인 물수리 등을 만날 수 있다.

하도해수욕장은 화장실, 샤워실이 잘 갖춰진 편인데 그에 비해서는 아직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수심이 얕고 물이 맑으며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고, 바다 너머로 우도가 보여 아름답다. 썰물 시간에 맞춰 가면 사람들이 모랫바닥에 털썩 앉아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진풍경을 만날 수 있다. 다음 아닌 비단조개를 캐고 있는 것.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개를 캐다가 밀물 시간을 잊기도 하고, 함께 온 일행을 놓치기도 한다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가까이엔 천연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와 제주도기념물 제24호인 별방진이 있다.

사라지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 황우치 해변

A.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79-4



“황우치 해변 알아?”라고 물으면 다들 “알지. 황우치 해안.”이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황우치와 황우지는 다른 곳이다. 황우지 해안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반면 황우치 해변은 그만큼 유명하지 않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비해 경관이 아주 빼어나다. 황우치라는 낯선 이름을 입속으로 외우며 처음 그곳으로 향한 날, 산방산을 바로 곁에 둔 풍경에 입이 떡 벌어졌다.

황우치 해변은 황소의 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암괴석과 더불어 검은 모래사장이 드넓게 형성되어 있다. 다만 지금은 모래의 양이 급격히 줄어 암반이 모두 드러나 있어 해수욕을 즐기기가 어려워졌다. 화순항 방파제 축조의 영향을 받아 모래가 심하게 유실되어 모래 언덕에 있는 소나무들도 뿌리를 드러내거나 쓰러져 고사하고 있다고 한다. 모래를 가져다 보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또 황우치 해변은 중국 등에서 밀려온 바다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갈 땐 봉투를 하나 준비해 페트병, 과자 봉지 등 쓰레기를 모아 돌아온다. 그리고 내가 줬던 쓰레기만큼 모래가 돌아오면 좋겠다는 기도를 언제나 함께 한다.

도민들의 해수욕장 신흥해수욕장

A.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31-9



신흥해수욕장은 제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인 함덕해수욕장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관광객 대부분이 함덕해수욕장을 찾는다면, 도민들은 주저하지 않고 신흥해수욕장을 찾는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과 물놀이 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늘 이곳을 꼽는다. 같은 바다를 가운데 두고, 조금 덜 붐비는 모래사장 위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언제나 북적거리는 관광지에도 사람은 산다. 그 사람들에게 신흥해수욕장은 숨겨둔 놀이터 같은 곳인 셈이다.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깔끔하고 쾌적한 편이며, 함덕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음식점 중 이곳까지 배달해주는 경우도 많아 편리하다. 한적하면서 편의시설이 가까워서인지 차박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함덕해수욕장을 등지고 신흥해수욕장으로 향할 때 만나는 해안이 아주 근사하니 꼭 달려보기를 추천한다.

바다와 역새가 만난 풍경 닭머리 해안길

A.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북3길 62-1



닭이 흠을 파헤치고 그 안에 들어앉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닭머리'라고 이름 지어진 닭머리 해안길은 기암괴석이 근사한 곳이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닭뿔 아니라 강아지나 토끼, 나무 같은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 기암괴석이 모여 있다. 이곳은 가을이면 역새가 가득해 풍경이 아주 멋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아니어서 잘 조성해 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호젓한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또 일몰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다. 가을 해 질 녘에 이곳을 찾으면 바다 멀리 화북 공단의 이색적인 풍경과 역새, 일몰을 함께 사진 속에 담을 수 있다. 닭머리 해안길을 포함한 해안누리길 50코스는 걷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가벼운 산책 코스로 추천한다.

다시, 청명한 숨결로



Now

다시 제주를

사라진 모래를
떠올리며

다정한 숨소리가 점점 열리지더니 이젠 들릴락 말락 희미하기만 하다. 곧 꺼질 듯 나약한 제주가 푸른 숨을 되찾기 위해선 관심과 애정이라는 묘약이 필요하다.

천진한 제주의 상실

많은 사람이 달뜬 마음을 안고 제주를 찾는다. 제주에 도착한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와' 하고 나지막이 감탄한다. 끝없이 펼쳐진 야자수에 놀라는 순간이나 새로운 세계에 당도한 듯 설레는 마음은 어쩔 수 없이 귀중하다. 섬이란 가치에 바투 붙은 푸른 섬, 우리나라 남단에 자리 잡은 제주는 아열대와 열대 사이의 독특한 기후를 넘나들며 쉬이 볼 수 없는 풍경을 만들어냈다. 검은 돌, 노란 꽃, 푸른 바다, 높은 하늘, 화산섬, 검은 모래, 해녀... 우리가 제주에서 사랑해 마지않은 것들을 떠올릴 때마다 '자연은 너그럽고도 다정하구나.' 생각하지만 이젠 좀더 뾰족하게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039

해변의 나직한 비명



사람들이 사랑하는 바다는 비단 새파란 물이 전부 아닐 것이다. 물길을 감싸고 있는 모래사장의 포근함. 이 역시 바다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는 공신일 테다. 알알이 빛을 내뿜는 모래알을 사뿐히 밟는 시간은 어찌나 행복에 겨운지. 그래서 여름이면 제주 해변은 사람들로 빼곡했다. 고운 모래에 몸을 누고 별을 즐기는 가족, 물가에 발만 담그고 뛰어노는 연인, 홀로 모래사장을 걷는 여행객... 제주도민들은 '모살뽕'이라고 부르는 모래찜질로 신경통이나 관절염을 완화하는 문화를 즐기며 축제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제주는 우리가 기대하는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풍성하고 너그러워 얼마든 누려도 닳지 않을 것 같은 자연이 이상할 정도로 비어 보여 당황스럽다.

여름이 와도, 제주에 가도 이전 전과 같은 해변을 마주하기 어려워졌다. 자연의 품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웃음을 짓던 사람들은 허망한 시선으로 모래가 없는 바다를 본다. 방파제 공사로, 해안도로 건설로 모래가 급속도로 유실되면서 크게 망그러진 우리의 푸른 섬. 검은 모래사장으로 목직한 아우라를 자아내던 해변들은 황폐해졌고, 소금막 해변에서는 모래가 거의 사라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났다. 폭신한 모래를 잃은 많은 해수욕장이 폐장되었고, 몇몇 해수욕장은 폐장이라도 면하고자 다른 지역에서 모래를 수급해 정비하며 명맥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이 바다를 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

풍성하고 강인한 관심



모래 유실은 모래사장이 좁아진다는 것을 넘어 제주의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다. 지금까지는 모래를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와 덮는 것으로 어찌어찌 바다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그렇다고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걸 무한히 반복할 수도 없는 노릇.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슬픈 모습을 마주하는 건 시간문제다. 아무리 많은 관심이 모여도 이미 훼손된 것을 이전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기는 어렵다. 전처럼 풍족하고 너그러운 제주를 기대하는 건 욕심이다. 지구온난화로 높아진 바닷물은 어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높은 방파제는 모래 유실을 초래한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와중에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닥칠지 몰라 마음은 복잡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이곳에서 어떤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래 유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요즘, 제주에서는 해안 공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쓰고 있다. 모래 유실 상태를 행정 구역별로 모니터링하고 모래 유실 방지 작업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 안팎을 살피는 것이다.

그리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많은 이의 마음이 바쁘다. 자연에 기다려달라고 조를 수도 없어 갑갑하고 미안하다. 지금 제주에 필요한 건 더 많은 관심이다. 아주 작은 관심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지금 여기엔 지니의 요술램프도, 이 땅을 구할 막강한 히어로도 없지만 네일클로버가 있을지도 모르겠단 희망을 품는다. 우리가 이 시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다. 우리의 작은 행동과 정책적인 대책이 모여 시나브로 푸른 섬을 되살릴 거라고 믿는다.

반짝이는 바다에서 오래 놀고 싶어서

Share

글 김건태 사진 진요셉

비치코밍 프로젝트 팀 제주도좋아

처음이지만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반가운 이름이 있다. 내겐 '제주도좋아'가 그랬다. 처음 제주도좋아를 알게 되었을 때만 해도 '바다의 반짝이는 것들로 작품을 만드는 팀'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단순한 일로 7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꾸준함이 대견했고, 또 궁금했다. 제주 바다에서 그들은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





비치코밍 프로젝트 팀 제주도좋아

꼭 만나고 싶었어요. 먼저 제주도좋아는 어떤 팀인지 이야기 해 주세요.

저희는 ‘한수풀 해녀학교’에서 만난 여섯 명이 결성한 ‘제주도 좋아’라는 팀이에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멀고 어렵게 느끼는 바다의 환경 문제를 문화 예술로 접근해서 다루고 있어요.

원래는 해녀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정식 해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도 있지만 해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 큰 학교예요. 멤버 모두 바다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자주 어울려 놀았는데, 하루는 우도에 놀러 갔다가 노는 김에 바다 쓰레기를 주워서 나오자 했어요. 다섯 포대를 가져갔는데 30분도 안 돼서 다 차버린 거예요. 그때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죠. 해녀학교를 졸업하면서 제주에 계속 살지 육지로 올라갈지 고민하던 차에,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끼리 각자의 제주로 제주 바다를 위해 무언가를 하자, 문치게 된 거죠.

각자의 제주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어요?

영상을 하는 멤버도 있고, 공예를 하는 멤버도 있어요. 목공과 디자인, 공연 기획 등 각자 재능이 다르죠. 물론 정식으로 해녀가 되고 싶었던 멤버도 있고요.

재능이 다양하니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많을 것 같아요. 바다 환경을 위한 제주도좋아의 포지션은 어떤가요?

활동 초반에는 제주 바다 쓰레기 활동을 한다고 하니, 1년에 쓰레기를 몇 톤이나 수거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는 데 주력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 대답하기 곤란하더라고요. 저희는 문화 예술을 바탕으

로 활동하는 팀이에요. 비치코밍을 예술에 접목한다는 정체성으로 재미있는 판을 만드는 데 집중해요. “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죠. 물론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과 협업하기도 하고요.

작가와 협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에요?

지난 5년간 서로 다른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레지던시에 머물며, 제주 바다 쓰레기를 주제로 작품을 남기는 기획이에요. 프로젝트 기간이 끝나고 육지로 돌아가더라도 비치코밍과 관련한 작업은 꾸준히 이어지죠.

저도 비치코밍을 제주도좋아의 작품 활동을 통해 처음 접했어요. 구체적으로 비치코밍은 어떤 활동이에요?

비치코밍은 외국에서 유래된 단어로, ‘해변Beach’과 ‘빗질하다Combing’의 합성어예요. 실제 비치코밍은 전파 탐지기로 해변의 금을 찾거나 난파선에서 떠내려온 통조림 등을 줍는 행위를 말하기도 해요. 단순히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줍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물론 저희는 바다 쓰레기를 주워 작품 재료로 사용하지만, 해변에서 조개껍질을 줍거나 예쁜 돌을 모으는 것 역시 비치코밍이라 할 수 있어요.

비치코밍의 재료가 되는 쓰레기가 따로 있어요?

유리, 유목,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바다에서 온 재료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요. 단순하게는 바다 쓰레기 속에서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 바다 자체가 가진 색, 질감, 소리, 냄새, 크기 속에서, 혹은 바다가 주는 즐거움, 두려움, 겸손함, 생명력 등에서 창작의 소재를 찾아내요. 쓰레기는 악기가 되고, 소리가 되고, 노래가 되며, 시가 되고, 춤이 되고, 연극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림이 되고, 보석이 돼요. 예측할 수 없는 재료를 바다에서 만나는 일은 보물을 찾는 과정과 유사해요. 가능성을 찾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모은 재료들이 어떻게 작품으로 탄생하는지 궁금해요. 바다 쓰레기를 재료로 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저희 제품의 주재료인 바다 유리만 봐도, 비치코밍, 세척, 건조, 커팅 등 여덟 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쳐요. 특히 가마 속에서 뜨거운 열을 가할 때 유리들이 저희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반짝거리며 빛이 나는 순간을 좋아해요. 하찮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더하면 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멋진 생각이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치코밍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한 2013년도만 해도 비치코밍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어요. 최근에는 제주뿐만 아니라 부산, 속초 바다에서 비치코밍을 하는 팀이 많이 늘어났어요. 바다에서 쓰레기를 줍는 ‘세이브제주바다’ 같은 비치 클린 팀부터 저희처럼 바다 쓰레기를 예술로 풀어내는 팀까지 다양한 비치코밍 포지션이 있어요. 점점 비치코밍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바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움직임이 생겨나는 것을 느껴요. 하지만 그건 바다 쓰레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각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해요.

제주도좋아에서 진행하는 ‘바라던 바다’는 어떤 페스티벌이에요?

매년 5월 말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바라던 바다’는 저희의 활동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비치코밍 페스티벌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바다에서의 즐거운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취지로 기획했어요. 다 함께 바다 쓰레기를 줍고 그 쓰레기를 업사이클 워크숍의 비용이나 재료로 사용해요. 해변에서의 전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마켓,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트럭 무대에서 공연을 진행해요. 작년까지 총 다섯 번의 페스티벌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일단 연기하게 됐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매년 콘셉트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저희 나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바다 쓰레기를 매년 선정했어요. 2014년은 유리, 2015년은 유목, 2016년은 플라스틱, 2017년은 어업 쓰레기를 소재로 기획전과 레지던시, 창작 활동, 페스티벌,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버려진 유리를 사용한 작가들의 전시 <모래로부터>, 유목에 다시 쓰임을 입힌 전시 <다시 빛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재로 한 조형 전시 <가벼운 플라스틱>, 어업 쓰레기 조형 전시 <부유하는 바다>, 비치코머들이 바다 쓰레기를 비치코밍 한 후 금속 공예 작가에게 보내 보석을 만든 전시 <제주 바다로부터> 등이 있어요. 특히 금속 공예 작가들과 진행한 <제



주 바다로부터)가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바다에서 쓰레기를 수집할 비치코머를 모집하고 금속 공예 작가들과 일대일 매칭을 했어요. 많은 쓰레기 중 왜 하필 그 쓰레기를 주웠는지, 어떤 보석이 되어 돌아오길 바라는지, 쓰레기를 주울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적어 함께 보냈죠. 정말 본인이 주운 쓰레기가 보석이 되어 돌아오는 경험이잖아요. 쓸모를 다해 버려진 것들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프로젝트였어요.

‘바라던 바다’ 1회 때 영상을 보게 됐는데,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음악과 춤이 감동적이었어요. 그 모든 게 마치 바다에서 태어난 듯 자연스러웠거든요.

2013년 첫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우리만의 제주로는 바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여러 예술가와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비치코밍 방식이 나올 테니까요. ‘노래하는 바다’, ‘춤추는 바다’, ‘연주하는 바다’라는 이름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뮤지션 김일두, 무용가 이재성, 악기 제작자 루니와 함께했죠. 특히 김일두 형님이 가장 고생하셨는데요. 일단 시작은 했는데 저희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고 어색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중구 천재’답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바라던 바다’라는 희대의 명곡을 탄생시켰죠. 참여자와 만나 함께 비치코밍 하며 쓰레기도 줌고, 가사도 줌고, 참가자들의 문장을 엮어 만든 곡이에요. 감동이었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재미있고 함께하고 싶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저희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줘요.

단순 캠페인으로 끝났다면 관심이 덜 했겠지만, 예술과 손을 잡으니 시간이 지나도 빛바래지 않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희는 바다 환경 오염이 우리 삶에 직접 맞닿아 있으면서도 개인이 접근하기엔 거리감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저희는 개인이 바다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하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술로 함께 제시해 거리감을 좁히고자 해요. 그래서 비치코밍이 함께 하고 싶은 재미있는 행동으로 인식되길 원해요. 무거운 의무감보다 가벼운 놀이에 대한 관심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회적 인식이나 지원은 어때요?

사람들이 저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하자 지자체에서 공간을 방문하거나 협조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는 평소 가진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자기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꿀 만큼 큰 힘이 있다고는 생

각하지 않아요. 작지만 지속적으로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치코밍을 하며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활동을 하며 가장 좋은 점은 평소 만나고 싶었던, 혹은 예상치 못했던 멋진 사람들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바다를 사랑하는 음악가, 예술가, 아이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에게 크고 작게 배우고 받는 것이 많아요. 각자가 주는 선한 영향력 속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 좋아 홈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주도 좋아”는 제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제주 바다를 소비의 대상이 아닌 아끼고 지켜야 될 대상으로 인지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흔히들 제주를 관광의 섬이라고 해요. 해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제주를 찾는 것은 반갑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관광은 소비를 기반으로 하고 그 소비를 통해 무엇인가 쓰고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안타까운 건 자연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제주도 좋아하는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단순히 한 번 쓰고 마는 소비의 대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아끼고 지켜야 하는 대상으로 인지하도록 돕고 싶어요.

그렇지만 바다는 넓고 우리는 작아서 작은 쓰레기를 줌은 일이 어떤 효과가 있나 싶기도 해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분명한 한계가 있겠지요?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민하던 부분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술의 효과를 수치화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정부나 기업, 시민 단체, 예술가 등 저마다 역할과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비치코밍 페스티벌도 앞서 말한 기관과 단체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저희처럼 함께 모여 쓰레기를 줌은 팀이 있다면,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팀이 있고, 정책 제안이 나왔을 때 여론을 만들고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팀도 있을 수 있고요. 한계에 연연하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행사를 주최하며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바다에서 만납시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쿨하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적든 공지를 보고 오는 사람들은 저희 활동에 흥미를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 역시 사람들과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무엇보다 강요하지 않는 태도로 바다를 이야기했던 처음의 마음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제주 바다는

아름답고 신나는 곳이에요. 좋아하면 자세히 구석구석 보게 되고, 제주 바다가 직면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도 알게 되고, 그러다 바다로 날아가기 쉬운 플라스틱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챙기려고 노력하죠.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각자의 행동과 실천에 따라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본인에게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런 강요하지 않는 태도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발견하게 돼요.

각자 다른 이유로 제주에 왔고, 해녀학교를 다니면서 제주에서 살고 싶어졌죠. 이곳에서 무엇을 하면 즐거운 마음이 계속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즐거운 일에 잘 쓰려고 노력해요. 억지스러운 것은 애초에 시작하지 않죠. 각자 에너지를 스스로 분배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생각들이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재주도좋아 멤버 개개인은 어때요? 꾸준히 바다만 바라보게 추동하는 것은 뭐예요?

각자 차이가 있을 텐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솔로로 시작했지만 8년이 지나가는 현재, 가정을 이룬 멤버도 있고, 그들의 아이들이 저희 멤버 수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저마다 사정이 달라졌고 근무 형태도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함께할 때 가장 즐거워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바다만 바라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웃음). 회계를 맡아주는 친구가 살림을 잘해서,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어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늘 고민이 되긴 하죠.

바다가 지겨운 적은 없어요? 이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요.

멤버들 모두 제주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고향도 모두 바닷가 마을이에요. 인천, 삼척, 울산, 사천, 부산, 제주까지. 어쩌면 몸속에 바다 유전자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출퇴근길 바다를 지나며 참 예쁘다 생각하거든요. 각자 일을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재주도좋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멤버 개개인이 재주도좋아를 통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 서로 지지해 주는 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재주도좋아의 고민은 뭐예요?

지난겨울, 6년 동안 사용하던 첫 번째 '반짝반짝 지구상회'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올해 이사를 하게 됐어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간을 알아보고, 공사를 하고, 이사를 하는 일련의 시간을 지나왔죠. 새로운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찬찬히 시간을 두

고 생각해 보려고요.

전염병으로 인간이 병들자 지구가 살아났어요. 아이러니하죠.

과연 바다와 인간은 공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바다와 인간은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단 일방적인 관계 같아요. 바다가 죽으면 우리도 죽고, 바다가 살면 우리도 살고.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바다는 살아나겠죠. 멸종되지 않고 바다와 살아가려면 우리 스스로 잘해야 해요. 코로나 시대라고 명명할 만큼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늘 그래 온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해 보려고요.

마지막으로 재주도좋아가 '바라는 바다'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걸 각자 이야기해 주세요.

신화정 처음 제주 바다에 들어가서 느낀 아름다움, 신비로움, 풍요로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앞으로도 계속 느끼고 싶어요. 그 바다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 수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인간이 저지른 잘못으로 죄 없는 바다 생명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해요.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바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로사 슬플 때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 바다를 찾아요.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껏 울다가 “뭐야, 그런데 바다가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감정과 바다, 둘 다 훼손되지 않는 게 바람이에요.

최윤아 ‘꿈’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바라는 바다는 끝없이 나열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계속해서 생각나는 꿈인 것 같아요.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공존하는 법

Clean Beauty

를 하나

아름다운 세상은 건강한 자연에서 시작된다. 피부에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 실천하는 일. 이니스프리가 한결같이 지켜온 '그린Green'의 가치다.

©김건태

Skin Loving Products, Earth Loving Actions

하얗게 질린 산호초

하와이는 산호초 멸종 문제가 심각해진 것을 깨닫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다. 특정 화학 물질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의문이 들었다. 어떻게 자외선 차단제가 바닷속 산호초를 죽인 걸까. 육지와 심해 사이에는 화려한 암초와 물고기가 가득한 산호초 지대가 있다. 사람들은 이 지대의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몰속으로 뛰어든다. 다이빙과 스노클링은 해양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액티비티로 자리 잡았다. 바다에 들어가 그 안의 생물들을 바라보고 교감하는 일은 자연을 가까이 느끼는 귀중한 경험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활동이 자연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몸에 붙은 자외선 차단제가 그 주범이다. 매년 1만 톤가량의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초 지대에 흘러 들어간다. 자외선 차단제의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은 산호초를 파괴한다. 산호초가 죽은 후 색을 잃고 하얗게 바래는 '산호 백화 현상'은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을 잃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해양 생물이 번식하도록 돕고 해수를 여과하는 등 해양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호초가 사라지면 바닷속에 남는 건 진흙과 모래뿐이다.

바다를 생각한 착한 선풍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사람들의 방심이 모일 때 자연은 파괴된다. 분명 해변에 나서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을 수는 없다. 땀벌에 살갓이 벗겨 지게 둘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생산하는 이들의 고민과 행동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니스프리는 피부와 바다의 건강을 위한 선풍제 제품을 만들었다. 오랜 시간 자연 원료를 활용해 스킨케어 제품을 만들어온 브랜드의 노하우가 빛나는 제품이다. 이니스프리는 산호초 멸종 문제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환경 보호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양 생태계 파괴 성분을 뺀 선풍제 제품에 'Coral Reef Friendly' 마크를 넣었다.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고민과 선택은 사람의 몫이다. 같은 제품이라도 환경을 해치지 않는 원료를 고르는 생산자와 그들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그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알고 있다. 산호초와 바다, 지구의 안녕을 바라는 그들의 작은 움직임이야말로 공존의 첫걸음이다.



섬을 걷는 동안 마주친 곳들

제주의 숨은 쉼터

사흘 동안 제주를 걸었다. 배가 고프거나 다리가 아파 올 때까지 천천하고 끈질기게. 도시를 벗어나 섬에 들어올 땐 “바다와 두 다리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하고 외쳤지만, 제주는 매번 호락호락하지 않다. 쾌청한 햇살과 끝없는 해안이 혹독하게 느껴질 즈음마다 섬 안으로 들어가 쉴 곳을 찾았다. 행군이라 고쳐 읽어야 마땅한 이번 산책을 돌아보다 잠시 머문 동안 감탄한 장소들을 기록한다. 도로 한가운데, 산 중턱에, 작은 마을 한 칸에 빼꼼 숨어 있는 곳에서 느낀 행복과 편안함을 떠올리며.

Place

다들 오지 마



Garden with Coffee
낮은 곳에서 눈 맞추는 정원



돌아보는 곳마다 초록인 섬에서 굳이 자연을 보러 정원에 가야 할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생태 정원의 대가가 만든 정원이 궁극해 베케를 찾았다. 베케 건물은 잘 깎아놓은 바위 같다. 넓은 정원에는 이름 모를 꽃과 나무가 가득한데, 단정하고 정제된 정원과는 사뭇 다르다. 이 자연주의 정원은 자연을 돌보기보다 함께 있는 것의 가치를 좇는다. 빛과 분위기, 공간에서 사람들이 느낄 감정을 고려해 디자인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일은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건 '베케(돌담)'을 품은 이끼 정원이다. 이끼 정원은 땅을 파, 부러 낮은 자리에 만들어졌다. 지대가 낮은 카페에서는 정면으로 보이지만, 야외에서 이끼들을 실물로 볼 때는

몸을 낮게 수그리고 봐야 한다. 물기를 머금고 쏟아지는 햇살을 받아 빛나는 이끼들. 사방에 이끼를 덮은 투박한 돌담. 엮여져서 바라본 정원은 어느 곳보다 아름다웠다.

베케의 김봉찬 대표는 행복을 위해선 자연을 눈여겨보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말을 떠올리며 윤이 나는 일들을 한참 바라보았다.

베케

A. 제주도 서귀포시 효돈로 54

O. 11:00-18:00, 화요일 휴무

Bookstore

고요한 바다 마을의 책방



Place

대낮부터 쏟아지는 비를 뚫고 책방을 찾았다. 바닷가 언덕을 오르면 작은 가게가 웅기종기 모인 건물이 보이는데, 라바복스도 그 사이에 있다. 책방은 마을을 닮아 조용하고 포근하다. 버스 터미널에 있을 법한 움푹한 의자에 앉아 안을 둘러봤다. 공간은 가운데 선반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서 보게 되어 있다. 눈에 띄는 건 그림책 선반이다. 다 큰 후로 그림책을 골라본 일은 드문데, 이곳에는 아이는 물론 어른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색깔이 가득하다.

책장은 주로 독립출판물과 에세이로 채워져 있다. 한가운데 놓인 여행 사진집이나 위미의 이웃 상점들 이야기를 모은 책은 라바복스의 출판물이다. 천장에 달린 모빌과 벽에 붙은 포

스터도 모두 구매할 수 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서로 방해하지 않게 양보하는 옷깃의 사각사각 소리, 계산하는 사람들과 사장님이 나지막이 인사를 주고받는 소리.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은 말소리를 줄이고 책장을 탐색하는 데 열중한 다. 책방 안의 사람들과 함께 설레는 사이에 비가 그쳤다.

라바복스

A.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87 1층

H. labas-book.com

O. 영업시간과 휴무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





Restaurant

길을 두드리는 이들을 위한 식당



무릉의 집들은 모두 비슷한 지붕을 얹고 있다. 넓은 땅과 하늘, 그늘 밑에 드러누운 고양이, 느릿느릿 달리는 트럭. 제주 고로는 이 여유로운 풍경 안에 자리를 잡았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변하는 대학가 앞 좁은 가게가 떠올라 들어서기도 전에 마음이 놓였다. 식당과의 인연은 서울에서 시작했다. 몇 년 전, 좋아하는 일식집이 예고도 없이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달는다'고 올린 소식에 얼마나 놀랐는지. 당시에는 운영이 어려워진 줄 알고 안타까워했는데, 나중에 들은 사정은 달랐다. 사장님은 출근 꿈꾼 세계 일주를 위해 가게를 정리하고 여행길에 올랐다. 1년이 지나고 그는 여독을 풀 겸 들른 제주에서 식당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제주에서도 잘 알려

지지 않은 이 마을을 찾았다. 식당에는 널찍한 주방과 드링크 스테이션, 조그마한 뒤뜰까지 마련되어 있다. 메뉴는 참치 덮밥, 연어 덮밥, 딱새우 크림우동 등 자신 있는 일식을 기반으로 구성했다. 그는 제주 주민들이 지나가다 잠깐 들러 맛있는 밥 한 끼 할 수 있는 식당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두드릴 고매, 길로족, 여행하듯 삶을 사는 그가 지은 이름이다.

제주고로

- A.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94
- H. [instagram.com/fejugoro](https://www.instagram.com/fejugoro)
- O. 점심 11:30-15:00(LO 14:30), 저녁 17:30-20:30(LO 20:00), 화-수요일 휴무

Art Museum
물방울을 품은 미술관

Place



검은 캔버스를 펼쳐놓은 듯 넓은 건축물이 우뚝 서 있다. 김창열 미술관은 '물방울 작가'로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품 세계를 고스란히 담은 곳이다. 두 개의 전시실에는 김창열 화백의 시대별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복도 끝 세 번째 전시실에는 때마다 다른 기획전시가 열린다. 미술관 내부는 빛과 어둠의 경계가 뚜렷해 투명한 것의 영롱함이 잘 보이고, 층고가 높은 전시관에서 마주하는 천자문의 한 글자 한 글자는 압도적이다. 그림에 맺힌 것은 슬픔일까 기쁨일까. 그의 물방울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한다. 전시실을 나설 땐 누군가와 함께 보러 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아쉬웠다. 화백의 그림 다음으로 오래 바라본 것은 물이다. '빛의 중정'에서는 분수의 물줄기 사이

로 빛나는 물방울 오브제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중정의 벽을 따라 난 길은 옥상으로, 옥상의 내리막은 다시 미술관 밖 정원으로 연결된다. 어느 쪽으로나 길이 이어지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흐르고, 빛이 드는 곳에선 잠시 멎는다.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A.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83-5
H. kimtschang-yeul.jeju.go.kr
O. 09:00-18:00, 월요일·1월1일·설날·추석 휴관



마음에 이는 파도

물결을 일렁이며 스미는 바닷물에 사람들의 얼굴이 비친다. 누군가에겐 일상이며 고향이고, 다른 누군가에겐 위안 혹은 탐험지가 되었을 곳. 저마다의 마음에 너울지는 파도를 그려본다.

제주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People

글 김재은 그림 배중영



여섯 개의 이야기

제주에 고향인 사람과 제주를 찾아온 사람,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까지. 많은 사람이 오가는 동안 제주에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에 답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만들어나가는 여섯 명의 제주도민을 만났다.

땅과 바다의 호흡

요가 지도자 김영채

@chaehaek



어떤 일을 하나요?

요가원을 운영하면서 프리다이빙을 하고 있어요. 또 사랑하는 강아지들과 매 순간 자연에서 배우고 있죠.

제주에는 어떻게 왔나요?

쌍둥이 언니가 제주에 먼저 살고 있었어요. 저는 쉬면서 작업하려고 내려왔다가, 우연히 운동 삼아 시작한 요가가 수련이 되어 계획보다 1년 반을 더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서울로 돌아왔는데 점점 제가 자연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제주에 내려와 산 지는 1년이 넘었어요.

후회 없는 선택이었나요?

그럼요.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의 하루를 떠올려 보았을 때, 언니와 반려견 ‘반다푸’가 있는 제주에 사는 것이 더 좋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미련 없는 선택이었죠.

제주에서의 삶은 어때요?

세상의 시끄러운 일보다는 제 안의 시끄러운 일들을 바라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또 요가원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과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배려와 존중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자연에서 천천히 살아나는 저의 뿌리를 바라

보며 매일매일 배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도시와 비교해 이곳에서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 있나요?

당연한 것 같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자연이요. ‘자연 치유’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주는 하늘과 땅, 바다와 숲이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가만히 집에만 있어도 자연의 에너지가 감돌아 저를 채워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가만큼이나 물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물에 있으면 고요하고 편안해요. 그러면서도 신기한 소리가 많이 들리죠. ‘물고기 소리일까?’ 고민하는 것도 재밌고, 물속에서 내 숨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 것도 참 재밌어요. 사실 제가 자동차 사고로 척추가 안 좋은 편인데 물속에서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유롭거든요.

제주를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풀벌레와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자연스레 내가 자연이 되어가는 곳.

트멍이 주는 여유

서예가 김중건

@samyokim



어떤 일을 하나요?

서예와 디자인의 경계에서 우리 멋과 깊은 감성을 표현해요. ‘필묵’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캘리그래피를 가르치며 손글씨 문화를 만들어 왔어요.

작품을 위해 요가를 한다고요.

5년 전, 발리스피릿 페스티벌에서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한 적 있어요. 그때 요가의 매력에 빠져서 처음으로 요가원을 다니게 되었죠. 몸을 풀면 작품도 풀어질 거라 생각하고 조금씩 몸의 반응을 바라보고 있어요. 작품 활동은 손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기 때문이죠.

제주에서의 삶은 어때요?

제주의 삶은 트멍 같아요. 트멍은 ‘틈’의 제주 방언이에요. 제주의 돌담을 보면 돌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그 틈으로 바람이 통하고 바깥 경치도 보이고 꽃도 피죠. 그 틈이 있는 돌담이 너무 좋았어요. 제주의 삶이 딱 그 트멍 같아요.

작업할 때 주로 어디서 영감을 받아요?

제주의 돌, 바람, 숲, 바다, 하늘, 가족들과의 제주 생활이 그대로 작품에 묻어나요.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과 그들의 삶, 거기

에서 느끼는 모든 것이 영감이 되는 거죠.

제주에서 작업해서 좋다고 느낀 점이 있나요?

제주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 주위로도 화가, 도예가, 목공예가, 건축가, 디자이너, 음악가 등이 있죠. 그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제주의 자연을 즐기면서 생활하다 보니 제 작품도 좀 더 확장성을 가지게 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작품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제주의 바다가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바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죠. 버리지 않기, 쓰레기가 보이면 줍기 등 자신이 바다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무와 시

가구 디자이너 김원진

@won.zin



어떤 일을 하나요?

가구를 만들어요. 직접 가구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하죠. 그뿐만 아니라 나무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을 하고, 목공 교육과 동시에 개인 전시도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 제주 사람이라고요.

맞아요. 근데 가구 만드는 걸 배우고 싶기도 하고, 개인 작업도 하고 싶어서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6년 정도 지내다가 제주로 돌아온 지는 1년 반 되었네요. 사실 제 마지막 꿈이 고향에서 공방을 차리는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 마지막 꿈을 가장 먼저 이뤘네요(웃음).

멋있는 가구가 많아요. 언제부터 가구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대나무로 연을 만들거나 장난감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무언가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군대에서 가구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참, 저희 할아버지도 집 짓는 목수였다고 해요. 그 영향도 없지 않겠네요.

제주에서의 삶은 어때요?

삶이 느려지고 여유로워진 건 맞아요. 하지만 공방 운영도 해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뤄나가려면 온전히 평화롭지는 않죠. 제주의 바람처럼 때로는 평화롭고, 때로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가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해요?

산책을 자주 해요. 제주를 걸어 다닐 곳이 정말 많거든요. 어떤 날은 숲을 보면서 걷고, 어떤 날은 바다를 보면서 걷고, 여러 곳을 걸어 다니며 좋은 에너지를 얻고 있어요.

시를 좋아한다고요. 가장 좋아하는 시는 뭐예요?

읽었을 때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시를 좋아해요. 요즘에는 이상 시인의 <이런 시>가 좋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를 읽는 것보다는 혼자서 시를 써보는 게 더 좋아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거짓 없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해녀의 이야기

레스토랑 대표이사 김하원

@haenyeo_kitchen



어떤 일을 하나요?

종달리에서 해녀의 숨을 담은 연극과 제주 전통 음식이 결합된 극장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동네 주민이 모두 가족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가족처럼 지낸 분이 많아요. 저를 딸처럼, 조카처럼 대하시죠. 그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잠시 제주를 떠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제주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연기 전공으로 입학했고, 더 큰 세상을 꿈꾸기 위해 미국 유학을 준비했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제주 지원 사업 관련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그렇게 제주에 잠시 내려왔는데 종달리 해녀분들이 처한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였어요?

뿔소라와 자연산 톳의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고, 제주의 자연 톳이 남해안의 양식 톳과 한데 묶여 같은 가격으로 수출되

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여러 시도를 해보고 결국 '해녀의 부엌'이라는 레스토랑을 열었죠.

어떤 시도들을 했나요?

처음에는 해녀들의 해산물을 제값 받고 팔자는 일념 하나로 예술포럼 친구들과 함께 톳 잔치도 열어보고, 해녀분들에게 예술포럼 교육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봤어요. 그러던 중 방치된 위판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공간을 사용해 레스토랑을 열고 마을 어르신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마음 열기가 쉽지 않았죠. 그때 어촌계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공간을 쓸 수 있게 됐고, 마을 사람들도 레스토랑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으시나요?

해녀의 숨 같은 삶이길 바라요. 공연과 비즈니스에 깊이 빠져 있다가, 숨이 턱 끝까지 찼 때 가슴속까지 한꺼번에 시원하게 내뿜고 싶어요.

바다와 함께

서퍼 송주영

@a_bout_



어떤 일을 하나요?

파도가 있을 땐 서퍼로, 없을 땐 캣맘으로 살고 있어요.

제주에는 어떻게 왔어요?

19년간 하던 패션 디자이너 일을 마무리하고 제주로 내려왔어요. 몇 년 전, 남편과 여름휴가로 제주에 놀러 왔을 때 제주의 자연환경과 여유로움에 매료되어서 '마흔 살이 되기 전, 이곳에서 꼭 살아야겠다.'는 막연한 목표를 정했거든요. 또 우연히 접하게 된 제주 서핑이 이사를 결심하게 한 큰 이유가 되었죠.

제주에서의 삶은 어때요?

도시에서의 삶보다 자유로워요. 도시에서 살 때는 타인의 기준과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이웃의 수도 적고 정해진 직업이 없어서 그런지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여행으로 접한 제주와 실제 살아본 제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행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육지에서 살다가 환경이 달라져 원인 모를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병원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죠. 그런데도 제주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자연이에요. 소소한 음식이어서 제주의 자연을 느끼면서 먹으면 어느 특별한 레스토랑 못지않게

느껴지니까요.

여가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해요?

함께 사는 네 마리의 예쁜 고양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제주에서 새로 사귀게 된 여러 마리 길고양이의 식사를 챙겨주곤 해요. 그리고 이웃들과 한집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해요.

가장 좋아하는 제주 바다는 어디예요?

저마다 매력이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한 곳을 고르기가 어렵네요(웃음). 굳이 꼽자면 금능과 협재 사이의 해변을 좋아해요. 비교적 관광객이 적은 편이라 조용하게 멋진 낙조를 즐길 수 있거든요.

바다를 즐기는 팁이 있나요?

파도가 있는 날은 중문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파도가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대신 서핑이 처음이신 분은 안전교육을 잘 받아야 해요. 파도가 없는 날은 작은 파라솔과 의자, 다과를 가지고 소풍을 나가보세요. 태닝도 하고, 음악도 듣고, 스노클링을 하면 제주 바다의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진답니다.

미완의 청춘

게스트하우스 주인 현미라

@mysterysalt_jeju



어떤 일을 하나요?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와 책방을 운영해요. 끝없는 육아의 좁은 틈을 비집고 간신히 무엇이든 읽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마음이 폭 가라앉는 날엔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책을 펼치곤 하죠.

게스트하우스와 책방, 그리고 육아까지 꽤 바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분주함 그 자체예요. 2012년 봄, 만식의 몸으로 제주에 내려와서 게스트하우스 설계와 공사를 시작했어요. 제주에 연고가 없다 보니 남편과 둘이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시작했어요. 육아와 일이 익숙해지던 3년 차에 책방까지 오픈하게 되었어요.

만식의 몸으로 제주에 내려온 이유가 있나요?

현실적인 이유가 컸어요(웃음). 당시 남편은 서울에서 카페 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비싼 임대료에 망연자실하고 있었고, 저는 서울 생활에 큰 미련이 없었어요. 또 서울의 임대료를 생각하면 제주에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의욕이 생겨난 거죠. 그 후, 제주 지도를 벽에 붙여두고 제주행을 준비했어요.

제주에 살아보니 어때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책방까지 걷는 100미터, 마트에 장 보러

가는 10분. 그 짧은 시간 속에 순간 행복력이 정말 높아요. 서울에서는 행복을 좇기 위해 여행을 가거나 연극을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곤 했는데 제주에서는 행복을 찾아서 일부러 무언가를 하는 게 사라졌어요. 여기저기 잠깐 걷고, 달리는 동안의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태풍 볼라벤이 왔을 때 이야기예요. 서울에서 막 내려온 아마추어라 대자연의 위력을 잘 몰랐어요. 제주에서 처음 맞이하는 태풍이라 들떠서 막걸리에 부침개를 먹고 있었죠. 창문에 신문지를 붙이라는 경고도 무시하고 말이에요(웃음). 잘 놓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그러다가 쿵쿵 소리가 나서 나가 봤더니 창고로 지어놓은 조립식 건물이 바람에 굴러 갈대밭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창문에 신문지를 붙이고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는 가방도 꾸렸어요. 지금은 태풍 예보만 뜨면 누구보다 잼싸게 집 안 정비를 해요.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분주하고 불안정해도, 제주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 인생은 미완이겠지만 그대로 괜찮은 청춘을 오래도록 보내고 싶어요.

엄마를 찾아서

Essay

글·사진 김건태

제주 그곳,
환상숲으로

제주에서 나고 자란 엄마는 서울에서 나와 동생을 키우다 다시 제주로 갔다. 우린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의 얼굴을 잊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사라졌다.

엄마가 사라졌다

“엄마가 사라졌어.” 동생의 문자를 받은 것은 토요일 저녁의 일이었다. 하지만 주말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들이 훌쩍 지난 뒤에야 답장을 했다. “또야?” 엄마가 사라졌다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 건 순전히 그녀 탓이다. 엄마는 특하면 휴대폰을 끄고 잠수를 타거나 말없이 여행을 떠났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제주로 돌아가는 날까지도 엄마는 우리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우주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굴었다.

“오빠,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거 같아.” 동생은 사라지기 전 엄마에게 문자 한 통을 받았다고 했다. “나를 찾지 마. 절대 오지 마.” 그러면서 주소 링크를 하나 보냈는데, 제주의 ‘환상숲’이라는 곳이었다. “참 엄마답네.” 엄마는 종종 허무맹랑한 상상이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고, 나는 엄마의 말을 한쪽으로 흘려듣는 쪽이었다. 자신의 기분을 반대로 말하는 엄마의 성격에 미뤄볼 때 “나를 찾지 마.”라는 문자는 일종의 시위이자 부탁이었다. ‘꼭 이곳으로 와. 나를 찾아줘.’라는.

김건태

전 어라운드 매거진 시니어 에디터.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후 매거진 에디터와 출판사 편집자로 일했다. 프리랜서로 전향해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손금의 생명선이 길어서 마음껏 여행을 하고 술을 마신다. 재미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다.

그때 그 숲에서 나는 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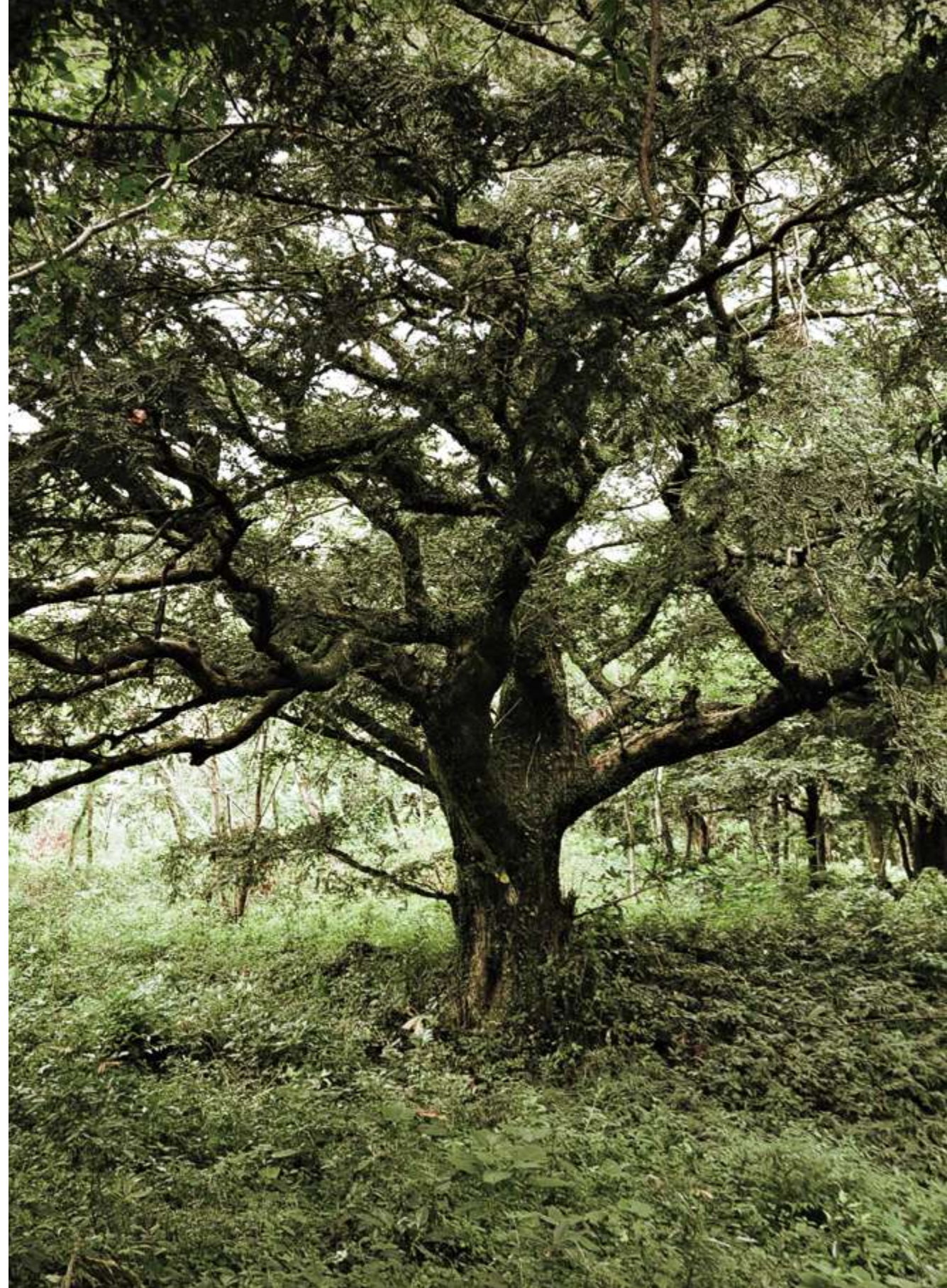
휴무를 낼 수 없는 동생을 대신해 내가 엄마를 상대하기로 했다. 제주행 비행기에 오르며 전원이 꺼진 그녀의 휴대폰에 “제발, 철 좀 들자 엄마!”라고 썼다가 지웠다. 대신 이렇게 보냈다. “숲으로 갈 테니 힌트를 줘요.” 몇 번의 터블런스를 통과한 비행기는 제주에 도착했고, 남국의 태양은 드러난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강렬했다. 숙소에 들를 것도 없이 곧장 숲으로 향했다. 서둘러 이 기행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었다.

숲은 한적했다. 도착하자마자 무작정 걷기 시작했는데, 한여름의 숲이 내뿜는 덥고 습한 공기에 숨이 턱턱 막혔다. 옷이 땀으로 다 젖었고, 성가시게 구는 날벌레를 떨쳐내며 나는 이 여행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어느 한 지점에서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해설 프로그램이었다. 멀찌감치 들으니 이곳은 오랫동안 버려진 땅이라 했다. 용암이 만든 암반 때문에 농토나 방목지로 쓸 수 없었다고. 척박한 토양의 나무는 뿌리가 흙 밖으로 나와 악착같은 힘으로 돌을 움켜쥐고 자랐다. 죽은 바위 위에 새싹이 앉고 그것이 자라 거대한 숲을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 침묵과 인내의 계절을 통과한 나무들을 생각하자 마음이 고요해졌다. 사람의 간섭이 끊기면 그 자리에 숲이 생기는구나. 나는 문득 스쳐 가는 생각 하나에 멈춰 섰다. 오래전 경험한 비슷한 장면이 떠올랐고, 홀린 듯 걸음을 재촉해 어느 나무 앞에 다다랐다. 하늘을 떠받들듯 기묘하게 뻗은 가지, 그때 그 나무였다.

엄마가 모든 걸 버리고 귀향하고 한참 후에야 제주에서 엄마를 만났다. 그때 엄마와 함께 걸었던 곳이 바로 이곳, 환상숲이었다. 우리는 숲을 산책하는 동안 거의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건 엄마의 오랜 버릇이었다. 엄마는 한참을 떠들다가 갑자기 말을 그치곤 했는데,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된 뒤에야 나는 그녀가 화가 난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 안에 멈춰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방향도 없이 숲길을 산책한 뒤에 엄마는 한 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췄고, 나뭇가지 위 등껍질 없는 달팽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들, 달팽이는 등껍질이 없으면 죽나?”, “간신히 살다가 죽겠지.”, “오는 길에 벼락 맞은 나무도 하나 있던데?”, “벼락 맞은 채로 살다가 죽겠지.” 우리는 그런 시답잖은 농담을 나눈 뒤에 산책을 마쳤다.

10년 전의 나무는 조금도 자라지 않은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화석이 된 엄마의 나무. 정작 엄마는 없는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엄마는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휴대폰을 열었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때 숲의 여행을 마친 우리가 어디로 갔더라? 나는 단단한 나무 기둥을 만지며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다.





녹아버린 소다 맛 아이스크림

“여기가 엄마의 고향이야.” 10년 전 여행에서 엄마는 허물어져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낡은 집 앞에서 말했다. 엄마는 어릴 적 발가벗고 뛰어놀았던 골목을 걸으며 그리운 이웃의 이름을 하나하나 발음했다. 그러나 신식 건물이 들어선 옛 마을회관 자리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막아놓은 우물터 앞에선 기억을 잃은 사람처럼 우물쭈물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다 잃어버렸어.” 일곱 남매가 한데 모여 살던 외가는 외조부모가 돌아가시면서 구심점을 잃었다. 장성한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엄마는 섬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터전을 구했다. 연고도 없는 스무 살 처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서 그녀는 밤낮으로 일만 했다. 남의 머리카락을 잘라 그 돈으로 밥을 벌고 자식을 키웠다. 세월은 흘러 그녀는 연어처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자식들에게 수수께끼를 남긴 채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나는 엄마의 추억이 담긴 골목을 걷다가 자연스레 바다로 걸음을 옮겼다. 이름 모를 포구를 지나 사람들이 모인 곳까지 걸었다. 까맣게 그을린 종아리며 모래를 잔뜩 묻힌 발로 도릿가를 서성이는 소년들로 보아 하모 해변인 듯했다.

어릴 적 엄마는 바다를 동경한 나머지 해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집안일을 도우며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꿈을 꾸는 일만으로도 매를 맞는다는 사실에 좌절했다고 했다. “가끔 바다에 나갈 기회가 생기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짜서 아주 멀리까지 헤엄쳤어.” 하지만 짧은 바다의 시간이 끝나면 결국 다시 제자리였고, 엄마는 자신의 못생긴 삶이 원망스러워 바다를 보며 엉엉 울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큰 언니는 항상 엄마를 찾아냈어. 소다 맛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또 그게 좋아서 다 풀렸던 것 같아.”

나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들고 모래사장에 앉았다. 우두커니 바다가 들고 나는 모양을 바라보았다. 아빠 손을 잡은 아가는 이제 막 걸음마를 댄 듯 아장거리며 바닷물에 발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고, 멀리서 찾아온 포말이 해변까지 밀려왔다가 금세 모래 속으로 사라졌다. 주변 가막집에서는 대낮부터 술판이 한창이었다. 그들은 근심도 없이 그저 지금, 이곳의 계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중이었다. 엄마가 여기에 왔었다면 분명 나와 같은 풍경을 보았을 거였다. 엄마는 이런 안전하고 나른한 풍경에 안도했을까? 아니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조금 슬픈 얼굴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손에 쥔 아이스크림은 이미 다 녹아 사라지고 없었다.

저녁이 오면 이름을 부를게

엄마의 숲과 엄마의 바다를 거치자 다음 목적지가 명확해졌다. 나는 차를 몰아 제주 북쪽 해안 도로를 달렸다. 엄마는 조천과 함덕, 김녕으로 이어지는 길과 그 길의 굴곡에 따라 달리 보이는 해안선을 유난히 좋아했다. 그 여행에서 나는 엄마를 스쿠터에 태우고 이 길을 달렸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엄마는 그날의 추억을 이야기하곤 했다. 나는 창문을 열고 오래전 유행하던 노래를 불렀다. 이따금 바람이 세게 불면 차를 세웠고, 쓸쓸한 가축들 몇 마리 풀 뜯는 광경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올라 저녁이 번지는 광경을 끝까지 지켜봤다. 예약했던 숙소를 취소하고 엄마와 함께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행 자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여정에 대해, 제주의 숲과 제주의 바다와 제주의 저녁에 대해서. 사라진 엄마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크게 웃었다. 모두가 자리를 정리하고 떠난 뒤, 불 꺼진 방에 누워 내가 달려온 여름의 선명한 풍경을 곱씹었다. 많은 여행을 홀로 했지만, 사실 혼자서 여행하는 일은 늘 쓸쓸함과 마주하는 일이었다. 잠이 들 때마다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그런데 이번은 조금 달랐다. 섬마을 속에서 섬 같은 엄마를 찾아다니던 여정 내내 나는 무언가와 함께 여행하는 기분을 느꼈다. 깊은 밤, 하루의 끝에서 나는 엄마가 그리워졌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엄마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알 수 없겠지만

끝내 엄마를 찾지 못한 채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나타났다. 동생과 나는 차례로 전화를 걸어 그녀의 무책임한 일탈에 크게 항의했다. 엄마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당당했다. “어머, 내가 그런 문자를 보냈니? 호호호.” 사연은 이랬다. 엄마와 큰이모는 단둘이 육지로 여행을 떠났고, 너무 신이 난 나머지 휴대폰을 끄고 매일 춤을 쳤으며, 훈남들의 대시도 받았다고 했다. 문자를 보낸 건 맞지만 술에 취해 전혀 기억에 없는 일이므로, 미안해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좋았지? 어쨌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잖아.” 맞다. 짧은 모험 내내 나는 엄마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엄마의 농담, 엄마의 골목, 엄마의 바다, 그리고 엄마의 외로움에 대해서. 하지만 그건 그녀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누군가 엄마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못 할 게 분명하다. 아마도 우리는 끝내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떤 위로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나는 제주에서 지고 온 짐을 풀지 않기로 한다. 엄마가 언제 또 사라질지 몰라서, 언제 사라진대도 바로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은 흔적들을 모으면 언젠간 엄마의 선명한 얼굴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때가 되면 나 자신에게도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내가 엄마를 찾았어.”

사랑 안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글 이원하

한 편의 제주

사랑을 빼놓고 제주를 이야기할 순 없다. 1년 8개월이라는 제주살이에서 중요한 건 사랑 하나. 사랑이 있었기에 제주살이를 버릴 수 있었다. 다시 제주에 정착하라고 하면, 글썄. 또다시 사랑이 올까.

어린 한라봉은 나를 기분 좋게 했다

한라봉 하나를 육 개월이나 숙성시켜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말고 과연 있을까요.

나는 타고나기를 물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생기는 대로 당신에게 주기 바빴지요. 하지만 당신은 유일하게 타고난 것이 물욕이었기에 나에게 아무것도 준 적이 없어요. 한라봉 하나는 당신이 내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빼앗은, 훔친 것에 가까웠지요.

오랜만에 당신과 만나는 날이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펼쳐진 보상과도 같은 짙은 날씨에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지요. 처음으로 당신과 두 끼를 함께 먹기로 약속한 날이었기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만남 자체만으로도 행복감을 안겨주는 기분에 엉덩이는 흔들거렸던 것 같아요. 원단이 무거워서 제주 바람에 강한 치마도 이 순간만큼은 하늘하늘 가볍게 리듬을 탔지요. 그때 리듬을 따라 울리던 휴대폰 벨소리. 그것은 나에게 슬픔을 주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당신은 내게 두 끼나 함께 먹는 것은 시간을 사치 부리는 것이니 점심은 각자 집에서 해결하고 저녁만 만나서 먹자고 했지요.

네.

이원하

2018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시집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로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의 시에는 제주의 풍요로운 자연에서 느낀 기쁨과 삶에 대한 고민,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담겨있다.

양보하는 사람이 다리 뻗고 잔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주입되듯 들었기에, 나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노을이 만든 분홍색 하늘 아래서 만났어요. 상처받은 나는 웃고 있었고, 상처를 준 당신은 무표정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바다 근처였고요. 바다까지 오면서 가장 많이 본 꽃이 동백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웃고는 있었지만 화를 내고 싶었지요. 그래서 화를 낸다고 낸 것이 겨우 당신의 마당에서 자라고 있는 한라봉을 훔칠 거라고 소리친 게 전부였네요. 설마 내가 정말로 훔치겠나요. 누구나 알 만한 사실인데도 당신은 정색을 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인이 이미 정해진 한라봉들이라고.

네.

이번에도 다시 양보.

두 번의 양보에 내 표정이 많이 안 좋았나 봐요. 저녁을 먹고 헤어지면서 당신은 내게 한라봉 하나를 건넸어요. 아직은 덜 자란 한라봉이었고, 당신이 소유한 한라봉 나무에서 가장 큰 열매였지요. 오늘도 이렇게 나를 들었다가 놓아버리는 당신의 놀림에 하루가 후딱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한라봉이 소중한 사랑스러워서 먹지 못했어요. 1년 8개월의 제주도 생활을 접고 육지로 올라오면서도 가슴에 품고 조심스레 들고 왔지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기를 육 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먹지 않으면 평생 먹지 못하게 될 거라는 한라봉의 표정에, 엄마의 의견에, 나는 한라봉을 반으로 갈랐어요. 반년이나 묵은 한라봉에서는 알코올 향이 짙게 뿜어 나오고 있었어요. 상큼해야 옳은 한라봉에서 알싸함이 전해졌어요. 한라봉 모양으로 뭉쳐진 소주를 베풀어 문 것 같았지요. 익미나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한라봉에서 아무런 의견도 얻지 못했는데 그것은 한라봉이 소주로 변해버린 탓이에요.

술은 늘 내게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해요. 답은 정말로 당신 마음속에만 있나 봐요.

마지막해 만든 계란말이, 이런 인생살이

양계장에서 유정란을 얻었고, 이 안에 노른자보단 병아리가 들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몸에 좋은 것이니 좋아하는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면 최고의 만찬을 선물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먹이고 싶었던 이 유정란은 다른 남자의 입속으로 들어가야 했지요.

당신이 러시아로 떠난 사이에 당신의 집을 지키던 남자가 있었어요. 나는 그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당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고, 계란말이를 먹일 계획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조금 수상했지만, 계란말이를 먹고 눈빛이 맑아지기를 바랐어요. 그의 수상한 행동이 청명해지길 바랐어요. 그가 지나간 자리에 끈적임보단 뽀송함이 남기를 바랐어요. 제주도 계란에 그런 힘이 없겠지만 괜히 마법을 걸어보게 되는 날이었어요.

그릇에다 유정란을 풀고, 소금을 가득 넣고, 채소를 넣으려던 찰나에 채소가 없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넣지 않고 만들어도 상관없었지만 구색을 갖춰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마당으로 가서 초록으로 보이는 풀을 아무거나 뜯어서 계란 물에 섞었어요. 아직도 그 풀이 뭐였는지 몰라요. 강아지풀이었을 수도 있고, 솔잎이었을 수도 있고 갯잎이었을 수도 있어요. 잡초였을 수도 있고요. 그 수상한 풀을 넣어 만든 계란말이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눈웃음을 보이며 식탁에 앉았어요. 앉아서 밥을 두 그릇이나 먹더군요. 요리에 기쁜 마음을 담아야 맛있어진다는 말은 순 거짓된 정보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분노도 아니고, 불안함도 아닌 미묘한 감정을 담아서 만든 요리인데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먹기 바빴어요. 요리사를 꿈꾸던 당신이 해준 요리는 매번 남기던 사람이, 어째서 내가 만든 계란말이는 배부르게 먹고도 아쉬워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었어요. 심지어 나중에 레시피를 물어가기까지 했지요. 잡초를 넣었다고는 말하지 않았고요.

이날 이후로 그 남자는 종종 나의 계란말이를 그리워했어요. 요리와 정성은 아무 상관없는 것일까요. 무감정도 정성이 있어야 품게 되는 마음일까요. 이렇게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남자는 아직도 종종 나에게 연락을 해와요. 답장하지 않는 나에게 열심히 구애를 해와요. 잡초가 계란말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한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에요.

요리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충 만드세요.

대충과 최선의 맛은 흡사하며 대충이 조금 더 자극적입니다.

추억은 무슨, 그저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그날

보름간 당신 집에 머물던 날이었어요.

정확히는 머문 척했던 날들이지요.

제주에서 집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당신은 나에게 파란색 열쇠를 건넸어요. 구원 과도 같은 그 열쇠를 들고 나는 당신의 집으로 향했지요. 그렇게 보름을 신세 지게 되었어요. 당신이 없는 당신의 공간에서 내가 처음으로 행한 것은 산책이었어요. 집 안 곳곳을 산책했어요. 예전에 당신과 함께 이 집에 왔을 때와는 크게 다른 분위기에 자주 걸음을 멈춰야 했어요. 분명 당신과 함께였을 때는 집이 조금 더 넓었고, 조금 더 깨끗했고, 조금 더 밝았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좁고, 지저분하고, 어둡게만 느껴지는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어서 행동한 것은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루를 버렸어요. 집 안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처리해야 했어요. 당신의 집에는 손님이 너무도 많았어요. 낯선 공기와 바람, 질척임 같은 것들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견뎌낼 용기가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소멸시킬 수 없으니 내가 호텔로 피신하는 것으로 견뎌냈어요. 단 하루만 이곳에서의 생활을 버티고 다음 날 바로 호텔로 직행했어요. 호텔에서서의 안정된 생활로 이야기의 끝을 맺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호텔에 묵으면서도 당신 집으로 자주 가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신의 집에 묵는 줄로만 알던 당신은 자꾸만 부탁을 해왔어요. 자꾸만 집 안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내가 호텔로 도망간 것을 눈치챈 사람처럼 말이에요.

보름의 마지막 날. 당신은 나를 찾아왔어요.

열쇠를 건네받기 전에 당신은 집 안 곳곳을 둘러보더군요. 약간의 짜증을 냈고, 약간의 고마움을 전했고, 약간의 만족감을 표현하며 내게 열쇠를 받아 갔어요. 받아 가면서 당신은 말했지요. 내가 이 집에서 묵지 않았던 것을 안다고, 귀신이 스쳐 지나가도, 추억이 스쳐 지나가도, 이보다 흔적을 안 남길 수는 없다고 말했지요. 반박을 기대하는 것 같아서 나는 입을 꼭 다물었어요. 당신을 좋아한다고 해서 당신의 공간까지 좋아해야 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 막상 당신이 없는 당신의 공간에서 머물다 보니 당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숨은 수국길, 그 길에서 자꾸만 멈추는 당신과 나

“올해 수국은 충분히 행복을 누린 것 같아요.
그러니 망설임 없이 수국을 꺾어도 돼요.”

우린 망설임이 없었기에 수국에게 눈물을 짜냈어요. 수국이 울면 우리가 웃을 수 있었기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국을 울렸어요. 몸쓸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지지 않았어요. 순전히 사랑 때문이었어요. 꽃을 울리는 것, 그렇게 우리가 웃는 것.

하지만 이제는 싫어요. 애초에 나는 집에다 꽃을 두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나는 봄이 저지른 발을 허무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애초에 나는 사랑 말고 소유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나는 눈물 없이도 웃어지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나는 사랑 말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당신이 알려준 당신의 모든 것을 배우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을 따르다가 당신을 올려버릴 것 같네요.

당신은 절대 모르지요. 나는 당신을 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혼자 울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인 삶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이제는 알아요. 난 사랑 없이도 제주에서 잘 살았을 거예요. 사랑은 혼자서도 가능한 감정이지만, 제주가 안겨주는 감정은 제주 없이 절대로 불가능한 감정이에요. 사랑은 상처를 주지만 제주는 상처 주지 않아요. 사랑은 자신을 달래 달라고 요구하지만, 제주는 반대로 나를 달래줘요. 사랑이 숨긴 건 눈물이고 제주가 숨긴 건 보석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눈물이 싫어요. 바닥에 무언가를 쏟아내기보다는 하늘을 향해 많은 것들을 날려 보내고 싶어요. 그게 비록 연기 같은 것일지라도 말이에요. 내가 탁한 연기를 뿜어도 제주는 나를 닦아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을 거예요. 제주는 나를 달래고 다루는 방법을 알아요. 이전 당신의 손길보다 제주의 손길에 더 익숙함을 느껴요. 제주와 이대로 평생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제주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제는 눈물이 어색해요. 당신보다 제주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제주어는 제주 바람을 닮았다



Word

정신지 사진 제공

할망 전문가 정신지

제주도 사투리로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다면 정말 10분의 1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된다. ‘제주도 사투리’가 아니라 ‘제주어’라고 칭하는 게 당연하다 싶지만, 내가 고개를 젓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도 여전히 제주어는 존재한다. 제주 섬사람들은 육지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제주어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리고 나는 제주어가 있다는 건 잊어버리고, 바다와 한라산, 새로 생긴 카페, 맛집 등에 대한 이야기만 하며, 제주도에 산다. 신지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놈뻐 하르방 어데로 감수광

몇 년 전 ‘제주어 일일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시간이 꽤 지나서 자세한 건 잘 생각나지 않지만 여름이었고, 오래된 시골집을 개조한 작은 공간에 여럿이 모여 앉아 수박을 깨 먹으며 제주어를 배운 기억이 있다. 선생님의 지휘 아래 ‘산 할아버지’를 제주어로 바꿔 “놈뻐 하르방 어데로 감수광” 하며 우렁차게 동요를 부르기도 했다. 오랜만에 “놈뻐 하르방”을 흥얼거리자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 떠오른다. 옆집 할머니가 젊은이들이 모여서 대체 뭘 하고 있나 궁금해,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 돌발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 선생님은 당황하지 않고, ‘네이티브 제주어 스피커’인 할머니를 수업 가운데로 모셨고, 우리는 조금 전에 배운 게 맞는지 함께 확인했다. 다 같이 웃으며 제주어를 처음 배우던 그날, 나는 제주도과 한 걸음 더 친해진 것 같아 조금 설렘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의 나는 여전히 제주어가 재밌다며 깔깔거리던 그날에 멈추어 있다. 제주어 선생님이던 정신지 씨는 그동안 수많은 제주 ‘할망과 하르방’을 만나고, 그들이 제주어로 해준 이야기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매체를 통해 옮기고 있다.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언어, 대부분은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할망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듣고 기록하는 신지 씨를 만나러 가는 길,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 ‘제주어’라는 도구를 갈고닦아 몸에 지닌 채 제주 돌담 사이를 지치지 않고 걸으며 할망들을 만나는 동안, 추임새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이는 시간 동안, 그에게 그리고 할망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정신지

제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2012년 귀향했다. 제주 할망, 하르방 등을 인터뷰하면서 제주의 역사와 풍습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묻고 듣고 기록하고 있다. 사라지거나 잊히기 직전의 제주도 라이프스토리를 구어화, 활자화하는 연구자이며 보기 드문 제주어 능통자이기도 하다.

할망 전문 인터뷰 작가 정신지

오랜만이예요. 제주어가 더 늘었겠어요.

그때 무슨 배짱으로 제주어 수업을 했나 모르겠어요(웃음). 처음으로 제주어를 가르친 날이었거든요. 그래도 재밌었죠? 그 날의 좋은 기운 덕분에 그 후로도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 수 있었어요.

원래 제주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여섯 살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이사를 왔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려고 제주어를 따라 쓰기 시작했죠. 어린 시절에는 다 같이 제주어를 쓰며 놀았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아이들이 점점 제주어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머리가 굵어지면서부터 제주 아이들은 섬을 떠나고 싶어 하거든요. 표준어를 쓰려고 애쓰죠.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제주어랑 멀어졌어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열아홉 살에 제주도를 떠났어요.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 등을 떠돌다 삼십대 초반에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어요.

4개 국어를 한다고요.

일본어와 인도네시아어,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거기에 제주어를 더한다면 5개 국어인 셈이죠. 일본에서 지역연구학을 공부했어요. 지역에 대한 오만 가지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언어는 언제나 기본이 되는 키워드였어요. 언어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방언과 소수 언어, 사라져가는 언어도 접하기가 쉬운 편이었어요.

저는 언어를 배우는 데 서툰 편이에요. 그래서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요.

일본에서 살 때, 일본말로 백 퍼센트 소통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색한 발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화가 좀 뼈격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 식품관 같은 데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반복해서 말하는 홍보 문

구를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한 문장을 따라 하더라도 노래하듯 말하자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 방법이 통한 거예요.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도 그렇게 늘었어요. 언어를 처음 접할 때마다 새로운 노래라고 생각하며 배웠어요. 언어마다 선율이나 발성법이 다르거든요. 재밌는 건 일본어로 얘기할 때 저는 아주 아무지고 공손하고요. 말끝마다 계속 “스미마센”, “아리가또”를 연발해요. 그러면서 실제로도 사람들을 과하게 배려하죠. 반면 영어로 말하는 저는 쿨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잘 지내.”, “너 목걸이 맘에 들어.” 스스럼 없이 말을 걸기도 하고요. 쓰는 언어가 바뀔 때마다 인격이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제주어는 어떨까요?

‘제주어’라는 노래는 어떤 사람이 부르는 어떤 노래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사람과 풍토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바람 소리와 물소리를 잘 들어야 해요. 제주어는 말끝이 짧고 거친 편이에요. 바람이 세서 길고 부드럽게 말하면 잘 안 들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들 하죠. 지금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말이 바람 소리를 닮아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연이랑 똑같이 바람에 흡수되는 운율을 가진 언어라는 거죠. 전자는 자연에 대항한 거고 후자는 흡수된 거잖아요.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설명된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어쨌든 제주어는 바람을 닮은 언어네요.

제주 바람처럼 역척스럽고 투박하게 뱉어야 하는 게 제주어예요. 제주도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고민이 있죠. 옆집 할망이 자꾸 우리 집 일에 참견하는 거예요. 가령 “마당에 그거 주워라.” 같은 말들이. 그때마다 우리는 어르신이니까 말대답도 못 하고 그냥 “네네.” 하고 말아요. 하지만 제주 할망이랑 친해지려면 내 의견을 정확히 말해야 해요. 제



가 그때 수업 시간에 말해준 거 있죠. “하이고, 삼춘. 나 알알 허कु다예(어르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할망들도 ‘재도 다 생각이 있구나.’ 하며 친근하게 느끼기 시작해요. 잔소리를 하는 할망은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야단을 치려는 게 아니라 ‘대대로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여기 마당에 뭐가 떨어졌으면 주웠어.’ 하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대화는 ‘공 주고받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주어는 더 그래요. 통명스러운 제주어라는 공을 예쁘게 닦아서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받은 공을 그대로 던져야 해요. 말은 그렇게 던지고 대신 마음을 예쁘게 닦아서 드리면 되죠. 과자 같은 걸 나눠 드린다던가 하면서요.

많은 할망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그런지 그 부분이 특히 궁금했어요. 그들의 어떤 점이 좋아요? 신지 씨는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많은 편인가요?

가족 관계 안에서의 할망이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의 할망으로 그들을 만나요. 제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1년을 집에만 박혀 우울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길을 나섰는데 그 길 위에서 우연히 할망들을 만난 거예요. “너는 실연했냐. 나는 내 눈앞에서 남편이 총 맞아 죽었는데(4·3사건 이야기).”라고 툭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위안이 있어요. 할망들 앞에서 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언어라면 오만 가지 형용사가 돌아왔을 텐데, 제주 할망들은 “하이고 기여”, “기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랬구나.” 하는 대답이에요. 투박해 보이지만 따뜻해요. 시시콜콜 설명하지 않아도 소리 하나로 돌려주세요. 그 소리에는 내가 너를 이해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또 무엇보다 제주어는 뱃심으로 얘기해야 하는 말이에요. 표준어로 얘기할 때랑 제주어로 얘기할 때는 완전히 발성이 바뀌어요. 내가 기운이 없거나 우울할 때도 할망들을 만나면 “어떻게 잘 지내셨수과?”라고 힘차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온 억척스러움의 언어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면 길을 나서요. 그리고 할망들에게 억척스럽게 말을 걸고,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듣지요. 그러다 보면 내 슬픔이 작아져요. 일부러 욕을 먹으러 가는 거죠. 그럴 때면, 아, 나는 할머니를 이용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소리 지르듯 제주어로 대화하고 나면 속이 뽕 뚫려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망들이 평생 안 해본 걸 같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무도 묻지 않은 걸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가령 “다시 태어났으면 뭐가 되고 싶어요?” 같은 질문들요. 앞으로 5년은 계속해서 제

주 할망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해요. 저는 할망들을 만날 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요. 다시 찾아갈 기억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다시 갔을 때 돌아가신 경우도 많았어요.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던 할망이 떠나고 외양간이랑 하르방만 남아 있는 집 앞에서 평평 운 적도 있어요. 제가 부지런히 다녀야죠. 제가 들은 이 이야기들이 현대 역사의 일부 분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주에서 살아온 여자, 할망들만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할망들이 떠나시기 전에, 지금에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걸 기록해 두면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제주어는 어디로 갈까요.

제주어는 제주의 바람과 현무암을 닮은 사람들이 내는 소리에요. 포장하지 않은 거침이 매력이지요. 지금 제주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도 땅도 매끈매끈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주어가 어떻게 변하지 않고 살아남을지, 가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지금의 제주어로 제주 사람과 이야기하고 만나는 것도 어쩌면 지금이 지나면 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점에서 제주어를 배워보는 건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제주어로 사람을 부를 때는 “양!”이라고 외친다. 배에 힘을 딱 주고 “양!” 내뱉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집에 혼자 앉아서도 그 짧은 한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하기가 쑥스럽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저기요”에 익숙한 사람. 하지만 용기 내어 일단 한 번 제주어라는 노래를 불러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먼저 “양!”부터. 로커가 노래하듯, 거센 제주 바람을 거침없이 가르며 “양!”



달리기와 글쓰기의 상관관계

Island

글·사진 김태연

섬에서 사는 일

평생을 도시에서 살아온 우리가 보라보라섬에 살기로 했을 때, 남편이 물었다. 섬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나는 달리기라고 답했다. “섬이 배경인 영화엔 그런 장면이 꼭 있잖아. 파도가 부서지는 해안가의 나선을 따라 달리는 주인공. 그 옆으로 따뜻한 눈을 가진 골든레트리버가 달리는 거지.” 그때의 나와 남편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늘 친절한 대형견 대신 아주 가끔만 다정한 검은 고양이를 사랑하게 되고, 그 고양이와 십 년 가까이 보라보라섬에 살면서 단 하루도 달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달리게 된다는 것을, 그즈음의 이야기다.

침대에서 나와 몇 발자국 옮기기도 전에 허리가 아팠다

남편은 갑자기 늘어난 몸무게가 허리에 부담을 준 거라고 다소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말을 했다. 체중계 앞으로 가려다 말했다. “왜?”, “안 봐도 알지 뭐.” 정말이었다. 따로 재볼 필요는 없었다. 한눈에 보기에라도 체급이 달라졌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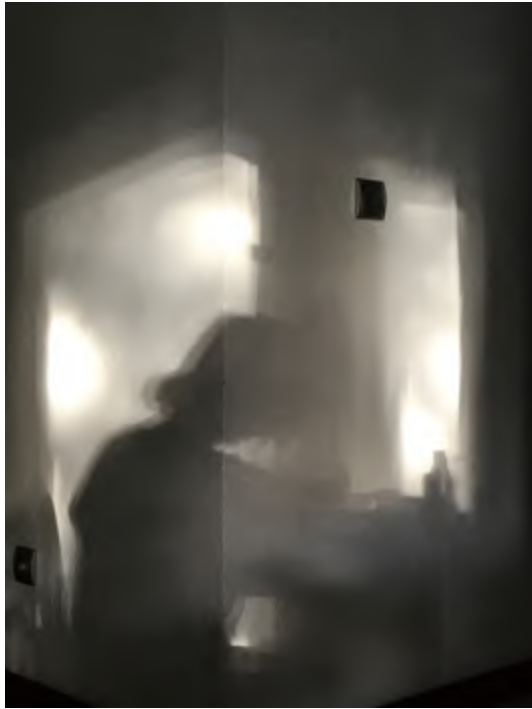
보라보라섬에 살기 시작하면서 식습관을 포함한 모든 생활 방식이 달라진 지 오래였다. 식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섬인 만큼 값비싼 신선 제품 대신 저렴한 냉동식품을 주로 먹었고, 대중교통이 없어서 어딜 가든 직접 운전해서 다니느라 걸을 일도 적었다. 물론 매일같이 넷플릭스 보며 맥주 마시는 습관이 제일 큰 몫을 차지하겠지만 어쨌든 몸이 달라졌다고 이제 와서 놀랄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허리가 아프다니. 전문 병원 하나 없는 섬에서 디스크라도 생기면 큰일이였다. 서둘러 옆 동네에 있는 작은 의원에 진료를 예약했다. 흰머리가 지긋한 의사 선생님은 내 허리를 여기저기 눌러보더니 물었다. “달리기 좋아하세요?” “네?” “달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뛰세요. 힘들면 걸어도 되고 그러다 괜찮아지면 또 뛰세요.” 나는 엑스레이는 안 찍어도 될지 물으려다 그 단어가 프랑스어로 떠오르지 않아 웅얼거렸는데, 선생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허리가 아프면 약을 먹고서라도 꾸준히 달려보고, 그 후에도 아프면 다시 오세요.”

달리기.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운동이 아닐 거다. 따로 준비할 것도 거의 없고, 그냥 집에 있는 운동화에 옷만 대충 걸치고 문밖으로 나가면 되니까. 하지만 나는 서울에 살 때도 한없이 느리게 걷는 인간이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거나, 건물목 신호등이 깜빡일 때도 ‘다음 기회’를 외치며 뛰지 않았다. 그런 내가 허리도 아픈 와중에 그보다 긴 거리를 달리려고 문밖을 나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나는 요즘 매일 달리고 있다. 해결책은 엉뚱한 데 있었다. 달리기보다 더 하기 싫은 일이 생긴 것이다.

김태연

언제나 여름인 남태평양의 외딴섬 보라보라에서 9년을 살았다. 먼 북소리가 아닌 인생 중 치는 소리가 들려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어려운드 매거진에 ‘보라보라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약 4년간 에세이를 연재했다. 지금은 잠시 섬을 떠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있으며, 다시 심심한 세계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다.



그건 바로 글쓰기였다.

영화 시나리오 계약을 마치고, 많은 작가의 조언에 따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았다. 하지만 근사한 장면을 떠올리지 못한 채 노트북만 노려보다 끝나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규칙적으로 쓰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려던 거였는데, 규칙적으로 실패하는 습관이 배어버린 느낌이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오늘 작업 잘했다고 물을 때마다, 그 물음이 진짜 날 물기라도 할 것처럼 도망갔다. 살찌서가 아니라, 맨날 앉아 있어서 허리가 아픈 거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유일하게 뿌듯한 일이었다.

작가 윌러스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루 한 시간쯤 글을 쓰면, 다른 여덟 시간은 글을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손가락을 물어뜯으면서 고민할 거라고. 대작가도 그런데 나라고 어찌겠냐는 깨달음을 얻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쓰지 못하는 날들이 쌓여갈수록 책상 앞에 앉는 일이 점점 더 두려워졌다. 의자를 당겨서 무릎에 힘을 빼고 털썩 앉기만 하면 되는데, 가슴이 마구 뛰고 숨이 막혔다. 어떻게 든 어르고 달래 앉혀놔도, 정신을 차려보면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침대 아래 구석진 곳을 닦고, 방충망의 먼지를 제거하고, 커튼을 떼 빨래까지 했다. 글쓰기만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너무 재밌었다. 그러다 마침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것이다. ‘달려볼까?’ 전에 없이 유혹적이었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숨 막히게 후덥지근한 오후였다

달려오는 차를 마주 보고 뛰는 편이 안전할 것 같아 도로를 건넜는데, 그것만으로도 벌써 땀이 났다. 운동화 끈을 바짝 당긴 후 바로 속도를 올렸다. 아직 한낮의 열기가 남아 있는 아스팔트 위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신발 밑창이 들러붙었다 떨어졌다. 30초 만에 호흡이 흐트러졌다. 입으로 숨을 몰아쉬자 편도까지 바짝 타들어 가는 기분이었고, 심장은 물론 오장육부가 제각각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았다. 이어폰에서는 랜선 코치가 질세라 힘을 주어 말하고 있었다. “속도를 줄이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달리세요. 그게 힘들다면 속도를 줄이세요.” 허공에 대고 아무 말이나 해보려 했지만, 헉헉거리는 소리만 났다. 속도를 줄였다. 보폭도 짧게 했다. 거의 걷는 것과 다름없이 느리게 달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자, 심박수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다시 호흡도 편해졌다. 조금 더 달려도 괜찮을 것 같았다. 지금 바로 멈출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싶지 않았다.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릴 때마다 풍경들이 뒤로 지나갔고, 몸은 앞으로 나아갔다. 움직이는 만큼 나아갔다. 움직이는 만큼 달라졌다. 달리는 정적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멋진 일이었다.

그제야 핑크빛으로 물들어 가는 하늘과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곡선으로 휘어진 모래사장 위의 야자수들이 금빛으로 반짝였다. 코코넛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열린 야자수 아래를 가로질렀다. 모래사장을 달리면 뭔가 그럴듯해 보일 것 같아서 그랬는데, 발이 푹푹 빠져 걷기도 힘들었다. 웃음이 났다. 어쩌면 나는 달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아직 나에게 대해서 모르는 사실이 남아 있다는 것에 안도감이 들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다. 티아레 꽃향기가 났다.



매일 달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나아지진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했다. 무턱대고 뛰는 바람에 발톱이 빠진 적도, 무릎에 기문 나쁜 통증이 생긴 적도 있었다. 흰머리가 지긋한 의사 선생님은 그래도 멈추지 말라고 했다. 허리 통증과 마찬가지로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나. 달려야지 근력이 늘어나는데, 잘 달리려면 또 근력이 있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한국에 돌아온 후 전문 병원에도 가고(트디어 엑스레이를 찍었다) 달리기 선수들의 영상도 찾아보면서 조심스럽게 달렸더니 통증은 정말 다 사라졌다. 지금으로선 그렇다.

얼마 전, 바닷가를 달리다 파도가 만든 모래의 결이 예뻐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 걸 단어로 뭐라고 할까. 사문. 파문. 생각하는 동안 이름 모를 것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사라졌다. 달리기를 시작한 이후로 많은 날들이 있었다. 폭우가 쏟아진 날도, 엄마가 아팠던 날도, 친구와의 관계가 끝났던 날도. 하지만 도저히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날이라도 신발 끈을 고쳐 매고 문밖으로 나갔다. 나를 그 안에 두지 않고, 밖으로 데려갔다.

그렇게 달리고 나면, 희한하게 다시 글을 쓸 용기도 생겼다. 뭐 하나 제대로 써내지 못하더라도 기죽지 않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다시 책상 앞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의 말처럼 필력은 근력일지도 몰랐다. 그렇게 어제도 오늘도, 꾸준히 달리고, 꾸준히 쓰고 있다. 꾸준히 귀찮고, 꾸준히 두렵지만. 내일의 일은 모르겠다.

우리 안의 바다

Art

종이 위의 갤러리

어른과 아이의 시선을 합쳐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어떨까. 날씨에 따라, 또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 모습이 달리 보이는 제주의 바다가 신기하기만 하다. 누구나 평생 딱 한 번 볼 수 있는 오늘의 제주 바다를 종이 위에 옮겨 담았다.

〈Fruit Of Light〉, 2020, Pastel, Oriental paper, Peel powder

그림 한여름



〈무지개 어둠기만〉, 2020, Acrylic paint, Oil pastel



〈Blue Wave〉, 2020, Acrylic paint



〈Orange Sunset〉, 2020, Pastel, Oriental paper, Acrylic paint

한예콜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아카데미한 미술을 거부하고 그림 안에서 순수를 갈망했다. 아이들과의 소통이 작품세계에 강한 영향을 주어 2007년부터 아이들과 함께 그리는 칠드런 아트라는 작업을 창작해 활동하고 있다.

제주 사람의 주머니

Item



글 김재은 그림 배중림

작고 소소한 것들

건조함을 피하고자 나는 늘 작은 주머니 속에 핸드크림과 립밤을 챙기곤 한다. 꼭 필요한 것만 넣을 수 있는 주머니에 사람들은 어떤 아이템을 챙기는지 궁금하다. 인스타그램에서 마주친 제주 사람들에게 물었다. 당신의 주머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노세범 미네랄 팩트

김효경

@hyo_00



111

자기소개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자연스럽게 미술 전공 학교에 다녔고, 좋은 기회로 드로잉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게 되었죠. 그때 수강생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더 많은 분이 그림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길 바라며 고향인 제주에 화실을 차렸어요.

주머니 속 아이템

이니스프리 노세범 라인의 제품들을 즐겨 쓰는데요. 그중 노세범 미네랄 팩트에 가장 손이 많이 가요. 이 제품은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유·수분 컨트롤을 해줘요.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습기가 많아 화장이 자주 뜨거든요. 근데 팩트를 사용하면 지속력이 높아지더라고요. 항상 화장 마무리 단계에 사용하고 있어요.

선물하고 싶은 사람

노세범 미네랄 팩트를 동생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은 직업 특성상,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해요. 늘 마스크에 화장이 묻어나온다고 저에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동생이 쾌적하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 제품을 선물해줘야겠어요.

데일리 마일드 선스크린 SPF50+ PA++++

허보람

@bongbong_lejusurfer

Item



자기소개

제주에 살면서 서핑과 자연에서 받는 영감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굿즈를 만들고 있어요. 원래 일주일 계획으로 바람 쐬러 온 제주도에서 자연의 매력을 크게 느끼고 이곳에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감탄이 나오는 노을과 맑은 하늘, 그리고 바다를 매일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사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주머니 속 아이템

데일리 마일드 선스크린은 저의 데일리 아이템이에요. 사계절 내내 바르고, 특히 여름에 많이 애용하죠. 이 선스크린은 다른 브랜드와 달리 눈에 들어가지도 따갑지 않고, 백탁 현상도 없어요. 몇 번씩 덧발라도 끈적해지지 않아서 좋아요.

선물하고 싶은 사람

제주는 햇빛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여름은 물론 모든 계절에 선스크림을 바르는 습관이 필요하죠. 제주에 놀러 온 친구들에게 데일리 마일드 선스크린 SPF50을 선물하고 싶어요. 이미 많은 친구에게 추천했지만, 더 알리고 싶네요(웃음).

그린티 씨드 세럼

차현

@iam_hyun



자기소개

제주에서 꽃과 제주를 담은 옷을 만들고 있어요. 청소와 수집이 취미죠. 제주는 저에게 심을 주는 곳이에요. 매일 해변에 누워 영화도 보고 책도 읽어요. 그리고 이곳의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일기도 쓰고 있고요.

주머니 속 아이템

사실 그린티 씨드 세럼은 단순히 좋은 향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이예요. 근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심한 건성이었는데 세럼을 3년 동안 꾸준히 사용하니 속건성이 사라졌어요. 강한 제주 바닷바람에 거칠어진 피부를 위해 아침, 저녁에 항상 스킨 루틴에 함께 하고 있어요.

선물하고 싶은 사람

저와 함께 일하며 찬바람과 더위를 항상 같이 맞는 언니에게 그린티 씨드 세럼을 선물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써본 제품이라서 믿음도 가고 언니도 좋아할 것 같아요. 선물 받고 기쁜 얼굴을 열른 보고 싶네요.



출판등록 제 2014-000186호
ISBN 979-11-88311-79-8
발행 2020년 10월 26일

발행인
임혜영

제작 기획
이니스프리

(주)이니스프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080 380 0114

🌐 홈페이지 inisfree.com
📘 페이스북 inisfreeHQ
📺 유튜브브 ecoinisfree11
📷 인스타그램 inisfreeofficial

Copyright©2020 (주)이니스프리

제작사
(주)AROUND
a-round.kr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이경

기획 및 편집
하나

어라운드 에디터
이주연
하나
김채은

프로젝트 에디터
김건태
김태연
이원하
정다운

디자인
양예슬
홍지윤

표지
김옥선

사진
김건태
김옥선
박두산
정신지
진요셉

그림
배중열
한예를

교정·교열
기인선